

# 제 5 편 産業과 海女



# 제 1 장 漁 業

## 제 1 절 개 설

해양과 그 자원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자유원칙은 2세기 이상 지켜져 왔다. 그러나 최근 해양이용 기술의 개발에 따라서 세계의 연안국가들의 해양개발 경쟁이 치열화되고 있어서 세계해양 질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 해양에서의 생물자원을 어획하는 어업국가의 어획성능 증가와 그 어획활동이 경제수역내에서의 어업관리와 수산생물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미치게 될 영향은 선진 연안국뿐 아니라 개발도상의 연안국과 도서국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일으키고 있다. 1974년부터 시작된 영해와 전관수역(경제수역)의 범위 확정문제와 공해해역의 자원개발문제를 동의한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의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이 1982년에 유엔에서 합의가 되었다.

이 협약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발표된다 하여도 어업자원의 이용, 보존 및 관리에 많은 문제를 남기고 있다. 또 이 협약의 이행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공해에서 어획하는 국가의 권한과 2백 해리 경제수역내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연안국의 권리와의 화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관련되는 문제가 고도 회유성 어류와 경제수역의 왕래 수산자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더욱 유엔 해양협약은 공해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관련국과 국제적 협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조항을 가졌으나, 그 보존과 관리조치의 실행에 관한 구체적인 특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협약 체계의 이행에 따르는 문제가 최근에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도서지방인 제주도 특히 우도는 유엔 해양법 협약의 복잡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다.

## 2절 해양환경



성산포에서 본 우도전경

우도는 제주도의 동쪽에 위치한 환해의 현무암의 섬으로 해안선 굴곡이 적고 해안은 현무암 절벽과 의회암의 조잡한 암반인 암초가 많아서 어류가 서식하기 좋은 어초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해류의 하나인 흑조 해류의 지류인 대마 난류가 흘러가는 연변에 있어서 삼치, 멸치, 고등어, 전갱이, 잭방어, 오징어, 복어 등의 중요한 어류들이 회유하여 좋은 어장이 형성되어 제주도에서의 중요한 어업기지의 하나로 되고 있는 섬이다.

1981년 변창인 연구사의 보고에 의하면 우도 남쪽인 우도수도에서 수온은 13.3℃~24.5℃로써 최고수온 8월에 표면수온은 24.5℃, 저층 수온은 22℃이고

최저수온 4월에 표면수온 13.5℃, 저층수온 13.3℃이다.

우도 근해에서 형성되고 있는 어업은 고등어 및 전갱이 건작망어업(6월~8월), 멸치 분기초망어업(5월~7월), 장어 통발어업(12월~2월), 갯방어 예승어업(7월~8월), 오징어 채낚이 어업(6월~12월), 갈치 채낚이 어업(6월~11월) 등이 있다.

우도 연안에는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등의 해조류와 전복, 소라 등의 패류가 서식하고 있어서 해녀들의 작업장인 제1종 공동어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해조류와 패류가 서식함으로써 이들을 먹이로 하는 회유성 어류가 많이 내유해서 좋은 낚시 어장을 형성하고 있다.

## 제 3 절 어업연역

### 1. 설촌이전(1844년 이전)

우도의 어업은 별도로 변천된 것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의 어업 발달과정 속에서 남·북제주군의 어업발달과정 특히 구좌읍과 성산읍의 어업 발달과정 중에서 변천하고, 우도에서 어획된 어류, 해조류, 패류는 세화항 및 성산항을 중심으로 해서 유통이 형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북제주군은 다른 곳과 달리 고대어업의 형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미미하고, 더욱이 우도의 것만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제주도지(1982. 하권) 남제주군지(1986년) 북제주군지(1987년)의 수산업 편에 기록된 「수산업의 발달과정」으로부터 간략하게 발췌하여 해방이전의 우도의 어업 발달과 관련을 맺기로 한다.

韓半島에 居住하던 舊石器人들은 적어도 後期舊石器時代에 이르러서는 內水面爲主의 생활을 하였을 것이라는 추측도 할 수 있다. 굽주림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들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였던 만큼 비교적 손쉽게 잡을 수 있는 어류가 그들의 행동권내에서 발견될 때 그것을 잡아 보충적 食糧으로 충당하려는 충동이 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 그들은 그들의 빈약한 知力을 충동원하여 漁獲法을 고안하고 이용하였던 것이 어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도는 다른 육지 지방과는 달리 貝塚이나 遺物, 遺跡 등이 많지 않아서 그것에서 발굴되는 여러 가지 어업의 遺物을 알 수 없으므로 인하여 고려의 어업형태를 명확히는 알 수 없으나, 구좌읍과 성산읍에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하나의 어장으로 어업이 행하여졌으리라고는 추측할 수가 있으며, 이것은 개척기원(1844, 憲宗 10)까지는 계속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전기는 高麗, 高麗史 및 新東國輿地勝覽 등의 사적기록에 의하면 성산읍과 구좌읍 연안이 淺深에서 패류와 해조류를 채취하기 위한 潛嫂漁業, 성기계 잔 천으로 만든 채그물류의 쪽지 그물, 회유성 어류를 어획하는 채그물어업, 대나무와 금속으로 만든 창으로 표면 회유성 어류를 어획하는 殺傷漁業, 아주 작은 포구의 입구를 돌로 막아서 밀물과 썰물에 의한 어업 즉 石防簾漁業(垣防漁業, 원담어업, 갯담어업) 등 있었다.

## 2. 설촌이후(1844년 이후)

牛島의 設村由來는 기록에 따르면 서기 1842년(憲宗 8년) 牛島와 加波島의 入耕허가가 시작이며 서기 1844년(憲宗 10년)에 進士 金錫麟이 벼슬을 그만두고 임금으로부터 牛島를 下賜받고 入島하여 정착한 것이 개척기원이 된다고 한다. 이후 사람이 정착하면서 썰물시에 패류 및 해조류를 손으로 채취하는 漁業이 발전되어서 潛嫂漁業이 되었을 것이다.

수산생물을 어획하기 시작되었을 것이나 이때에 행하여진 어업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성기계 잔 천으로 만든 채그물류의 작은 쪽지그물과 표층 회유성어류(고등어, 멸치)를 어획하는 채그물 어업이 최근까지 제주도 연안에 행하여지고 있는 멸치 분기초망어업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아주 작은 포구의 입구를 돌로 막아서 회유성어류(주로 멸치)를 밀물시에 들어온 어류가 썰물시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서 어획하는 石防簾漁業(垣防漁業, 원담어업, 갯담어업)은 우도 지방에서 행하였다.

## 3. 日帝時代와 光復이후

開港以後 韓半島를 植民地化하기 위한 工作을 고찰하고 비인도적 수단을 동

원하여 진행시켜 왔던 일본은 1910년 8월 29일에 드디어 한국을 強占 아래 日本帝國에 併合시키고, 한국에 朝鮮總督府를 설치 운용하였다. 총독부에서는 漁撈技術改善과 漁場開拓이란 명목 아래 植民地 統合 第1期부터 試驗調査 事業, 第2期는 조선총독부 水産試驗場 設置 第3期는 養魚場設置와 水産試驗支場을 設置하여 水産動植物을 대량으로 漁獲하여서 日本으로 가져갔다.

朝鮮時代 末期에 日本人이 來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종류의 漁具·漁法이 우리 나라에 전파되었고, 植民地 統治가 시작된 이후로 그것은 계속되어 한반도에 있어서의 漁業은 韓國在來式 漁具·漁業과 日本式 漁具·漁業의 混合된 漁法이 나타나며 刺網, 手繰網, 大敷網, 巾着網, 潛水器, 鮫鯨網, 壺網, 角網, 抄網, 敷網 등의 漁業이 행하여 졌다. 따라서 우도 沿岸에서는 능성어, 참돔, 갈치, 붉바리, 우럭바리, 조기, 불뚝복 등을 어획할 수 있는 日本釣 및 延繩의 낚시 어업, 멸치를 어획하는 焚寄抄網漁業과 罷網(후리그물)漁業, 筏船(떼배)를 이용하여 자리돔을 어획하는 敷網(들망)漁業, 전복·소라 등 어획하는 潛水器 어업과 미역, 모자반, 뚝 등 해조류를 어획하는 해녀 어업이 행하여졌다.

#### 4. 光復 이후

光復 直後 우리나라는 政治的 混亂과 不安속에서 軍政 및 過渡政府를 거쳐 오는 동안 經濟的으로는 日本 經濟와의 斷絶로 인해 生産萎縮, 日本人들에 의한 生産施設 破壞, 南北韓分割에 의한 産業構造의 畸型性 激化, 思想對立으로 인한 社會的 混亂 등이 經濟發展을 어렵게 하였다.

韓國漁業의 발달은 韓國經濟 全般의 狀況과 그 與件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光復直後 漁具材料의 國內生産이 되지 않고, 6·25 動亂으로 漁船, 漁港 漁獲物 處理加工施設 등의 破壞로 漁業生産에 致命的 打擊이 아닐 수 없었다. 1960年代에 접어들면서 經濟開發 計劃의 着手를 비롯하여 對日請求權 資金, 漁業協力 資金의 投入과 水産廳의 發足を 계기로 우리 나라 漁獲量 및 水産物 輸出의 急伸張으로 漁民의 所得增大를 가져오게 되었다.

1960年代부터 1980年代에 이르는 동안 世界 景氣의 沈滯와 石油波動, 沿岸

國의 200海里 經濟水域 宣布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漁撈技術의 開發 海外 漁場의 進出, 漁業基本施設 및 生産手段의 擴充, 投融資豫算의 增大에 힘입어 漁民들의 잘 살아 보겠다는 굳은 意志가 혼연일체가 되어 漁業의 零細性을 탈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社會 및 經濟的 惡循環을 是正하고 自立經濟의 達成을 위한 基盤構築에 基本目標을 두고 출발한 第1次 經濟開發 5個年 計劃에 발맞추어 沿近海 水産資源의 保護育成과 淺海 干潟地 및 內水面의 開發, 遠洋漁業의 開拓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施策이 계속됨으로써 漁業의 발전은 더욱 加速化되었다.

## 제 4 절 主要 漁業

光復 이후 1950년대의 우리 나라의 沿近海 漁業은 徒手採捕 爲主의 零細漁業에서 漁船漁業에 이르기까지 生産手段의 貧弱과 漁撈技術의 不足으로 沈滯의 늪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다. 그러나 1962년부터 經濟開發計劃이 시작되면서 漁船勢力의 擴張, 漁業器機의 現代化, 漁撈技術의 開發 등 生産基盤이 構築되고 水産物 輸出增大의 促進으로 漁民所得은 날로 늘어 갔으며 1985년도에는 沿近海 漁獲量은 1,494,940M/T, 沿近海漁船은 50,706隻이었던 것이 1989년에 97,656隻으로 크게 伸張되었으나 沿近海 漁民數는 減少現象을 나타내고 있어 漁民의 實質所得은 크게 向上되었다.

1990년도 제주도의 漁獲量은 36,688M/T, 漁船勢力은 2,055隻, 14,000톤이고, 養殖生産量은 106톤, 水産物 輸出量 24백만 달러이었다.

1990년도 우도의 漁獲量은 671M/T, 18억 3천만원 정도이고, 漁船勢力은 6隻, 22.95톤이며, 1992년은 1007M/T, 19억 4천만원, 13隻, 47.6톤이었다.

### 1. 延繩漁業

延繩(주낙)어구가 일본인에 의해 우리 나라에 전래된 것은 1900년경으로, 주



낙 한상지는 길이가 약 450m의 幹繩에 3m마다 1.5m정도의 枝繩에 낚시를 달아 미끼를 끼우고 조업한다. 연승에 의해 두툽상어, 붉바리, 능성어, 참돔, 불뚝복, 옥돔, 조기, 갈치 등이 어획되었다.

그리고 수심 20m 암초가 많이 있는 바닷가에서 대낙시어구에 의한 어업이 있었으나 어획량은 적었다. 특히 예승낙시어구와 자리돔의 미끼를 이용하여 갯방어를 어획하는 어업은 특이한 것이고, 이 갯방어는 제주도내에 있는 음식점의 회감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 2. 채낙이 漁業

연안 가까이에 회유하는 오징어는, 우리 나라 南海岸에서는 定置網, 東海岸에서는 走光性이 강한 것을 이용한 대낙시, 보채낙시(天秤釣漁具) 어업이 1970년 이전까지는 어획되어 왔다. 어선이 소형에서 중형으로 개량됨에 따라 發電機의 용량이 크게 증가되자 集魚燈에 의한 오징어, 갈치의 誘集이 쉽게 이루어져서 오징어, 갈치를 어획하는 채낙이 어업이 제주도 연안에서 성행하게 되었다.

## 3. 焚寄抄網(챗배) 漁業

멸치를 대상으로 하는 채그물(抄網)인 챗배는 우리 나라 남해안의 멸치어장에서 두루 쓰이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아서 제주도 연안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어구의 하나이다. 集魚燈은 1920年代까지 肥松의 뿌리, 1930年代에는 카바이트와 석유(탱크식), 1960年代에는 發電機를 아용하였다. 현재는 멸치 분기초망 어업은 우도 연안에서는 2월부터 8월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 4. 자리돔 들망(敷網)

들망(敷網)어업은 제주의 고유의 배인 筏船(떼배) 또는 소형선으로 암초위를 유영하는 자리돔을 어획하는 것이다. 그물 어구는 둘레가 5m의 원형태에 주머니 모양의 그물코의 크기가 23mm인 그물감을 붙이고, 원형태에서 8개의 줄이 한데

모여서 引網에 연결된다. 들망을 자리돔이 잘 유영하는 암초에 쳐놓아서 기다리다가 자리돔 어군이 그물어구 위를 지날 때 그물을 들어 올려서 어획하는 것이다. 어획된 자리돔은 자리 젓갈용, 자리회용, 연승이나 예승어구의 미끼용으로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다.

## 5. 角建網 漁業

網의 四角網의 建網의 中間形態를 取한 漁具로써 防陣網 漁業과 亞網漁業의 定置網 漁具가 變遷하여 지금의 어구가 된 것이다. 어구는 길그물(垣網) 헛통(運動場)으로 되어 있으나, 헛통은 바닥그물(底網)이 있는 그물로 원통(箱網)을 겹하고 있다. 漁法은 하루중에 물 때를 맞추어 즉 정류시(조석에 의한 물의 흐름이 없는 때)에 길그물의 입구를 해저에 있는 그물로 막고, 헛통의 바닥그물을 끌어 올리면서 입망된 어군을 한쪽 끝으로 몰아서 어획을 한다. 각건망에 의하여 어획한 어종으로는 멸치, 고동어, 전갱이, 꼬치고기, 농성어, 쥐치, 벤자리, 참돔, 황놀래기, 썸뱅이 등이 있다.

## 6. 揮羅網(후리 그물) 漁業

후리그물 어구는 地引網 漁具의 하나로서 육지부에서 사용하는 것과 그물 어구의 구성이 다른 독특한 것으로 우도에서는 주로 멸치 어군을 어획하기 위한 어업(일명 : 멸후리잡)이다. 그물 어구는 먼 그물감과 벧짚으로 길이가 300m내외, 폭이 8~12m경인 직사각형 모양인 그물 어구 끝에 300m 내외의 引網(마닐라 로프, 또는 남통 나무로 제작한 남통줄)을 붙인 것이다.

어구의 침자쪽이 해저에 닿아서 예인되므로, 해저에는 암초가 없고 모래나 빨로 되어 있는 해안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우도면 오봉리 해안에 성행되었다. 후리그물 어구의 양당은 육지에 있는 여러 사람이 引網을 잡아당겨야 되고 한밤중에 조업을 하므로 같은 마을에서 뜻이 맞는 사람이 모여서 계(契, 집, 일종의 상호협조 단체)를 조직하여 조업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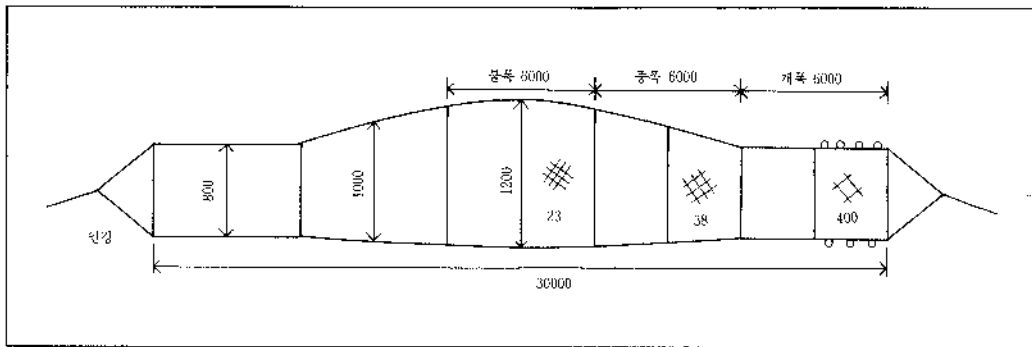
개외당 백사장 전경 (30~40년 전만해도 이곳에서는 멸치후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계원(契員, 집원, 漁夫)은 37~40명 정도가 최소 인원이고 때때로 그 이상도 되었다. 계원의 구성은 어로장인 직책으로 공원 1명(어로에 많은 경험, 지도력, 연륜 등이 있는 분), 공원의 보조원인 소임 2명(힘과 작업 능률이 많은 젊은 분), 보통 계원 34~37명으로 되었다.

어기는 음력 5월 초부터 10월 말까지이고, 조업은 강한 조류의 힘으로 별치 어군이 육지쪽으로 내유가 많은 사리 시기에만 이루어졌다. 조업은 하루 한 번의 투양망을 하는데 밤중의 밀물 초기에서 투망을 시작해서 썰물이 시작하기 전에 양망을 완료하였다. 이 양망 완료시각이 이른 아침이므로 대부분의 계원들은 오전에는 휴식을 하고 오후에는 어구 보수와 다른 집안 일을 하였다.

조업방법은 해질 무렵에 소임이 어장의 주위를 관찰하여서 그날의 조업 여부가 결정되면, 야간의 밀물 초기에 어선 3척(범선 또는 때배(태우, 筏船))중에 한척(A선, 소임 1인, 계원 7~9명)에 그물 어구(그림 1)와 인강(전체의 반), 다른 1척(B선, 소임 1인, 계원 7~9명)에는 인강(전체의 반)을 싣고, 또 다른 1척(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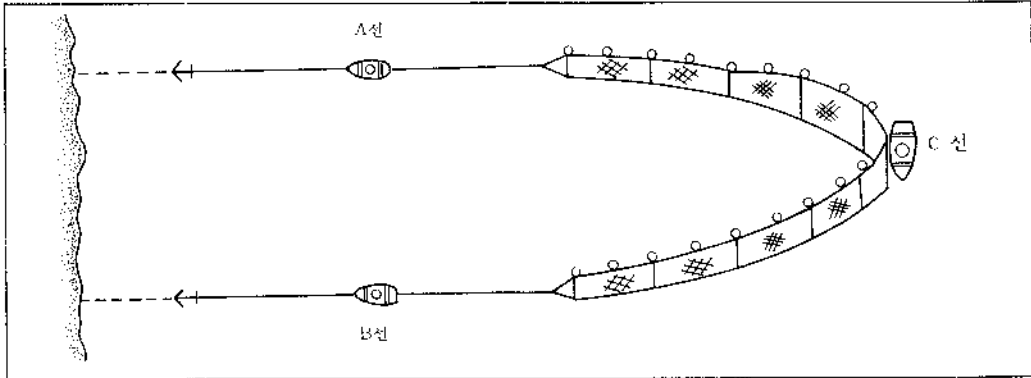
선, 공원, 계원 2~3인)은 공선으로 외해로 나가서 투망할 해역에 도착하면 B선이 닻으로 정선하고, B선의 인강과 A선의 그물 어구의 끝을 연결하여서 해안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항해하면서 그물 어구의 끝을 연결하여서 해안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항해하면서 그물 어구를 투망 완료하고, 인강 투승이 시작되면 어선은 해안선(그물 어구를 투망한 선)과 직각 방향인 육지쪽으로 투승하며, 닻으로 정박하여 A선과 B선은 동시에 인강을 양승하기 시작한다. 또 C선(공원, 계원 1~2인)은 인강과 그물어구의 투하를 총지휘하고, 그물어구의 반이 투망되는 지점에서 그물 어구의 부자쪽을 인장시켜서 떨치 어군이 부자쪽으로 넘치지 못하도록 한다. A선과 B선이 인강을 양승하면서 해안에 닿으면 육지에 있는 계원과 동네 사람이 함께 인강과 그물 어구를 양육하여 떨치를 어획한다.



(그림 1) 어구소요 자료 명세

단위 : mm,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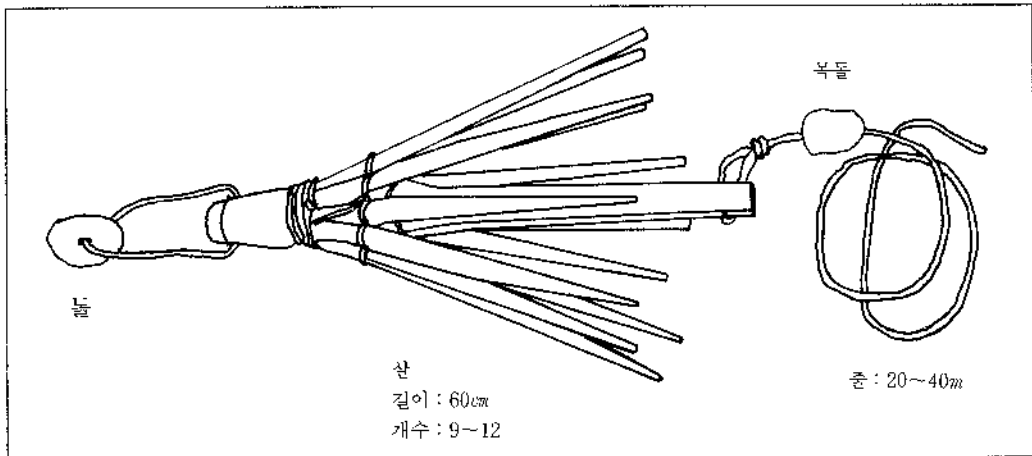
부 분 별 명 칭	재 료	규 격
망 지	면사, 벗짚	
부 자 망	마닐라삼, 남통줄	180슴
부 자	나무	
침 자 망	마닐라삼, 남통줄	60슴
침 자	돌	
목 통 계	마닐라삼, 남통줄	180슴
인 망	마닐라삼, 남통줄	180슴



〈그림 2〉 멸치후리그물

어획물의 종류는 주로 멸치이고, 소량의 어린 전갱이와 고등어, 돔, 가오리 등이었다. 어획량이 많을 때는 트럭(4톤)으로 10개 정도이고, 어획된 멸치는 멸치젓갈, 건멸치 등으로 일부가 사용되고 나머지는 보리농사의 밑거름(비료 대용)으로 이용해서 보리 농사가 잘되어서 멸치 후리그물 계원들은 동네에서 부유한 생활을 하였다. 이 멸치 후리그물 어업은 집어 등을 이용한 멸치분기초망 어업의 발달로 해안으로 내유하는 멸치 어군이 적어서 1960년대 이후에 조업이 중단되었다.

## 7. 넓미역 채취 어업



〈그림 3〉 넓미역 채취 갈퀴

예부터 우도의 주산물이었으며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넓미역은 일

명 광포, 넓과라고도 부르며, 이 미역은 보통 미역보다는 넓은 것이 특징이다. 이것이 서식하는 수심은 15~25m정도, 해저가 산호 모래인 곳에서 잘 자라고 있다.

채취시기는 7월 중순경(초복을 전후한 시기)부터 시작해서 1개월 정도의 조업 기간이 된다. 채취 방법은 어선(동력선 또는 범선)과 씨래(일명 갈취)를 이용한다.

우도면 서광리, 오봉리, 종달리의 사이에서 행하여 졌고, 채취방법은 어선을 이용하여 길이 약 15~30m 가량의 밧줄에 가시나무 또는 소나무로 만든 씨래로 산호 모래지역을 끌면서 넓미역이 씨래에 걸리면 선상에서 인력으로 끌어당겨 채취를 하였다. 바람이 있을 때는 범선, 바람이 없을 때는 동력선을 이용하며, 어선의 우현에 씨래를 2~6개(어선의 크기에 따라서 다름)를 장착하고, 선수쪽에 있는 씨래의 줄이 15m이고 선미쪽으로 가면서 씨래의 줄의 길이가 5m씩 길게 한다. 그리고 씨래의 줄의 간격도 5m 정도이다. 이용 방법은 건조시켜서 식용, 또는 제주도, 전라남도 지방에 판매를 하였다.

※ 후리 그물과 넓미역 채취 어업에 관한 자료는 우도면 오봉리에 거주하는 “윤봉춘”씨의 협력에 의한 것.



양식미역이 생산되면서 효용가치를 상실한 넓미역 자생지

## 제5절 어업현황

우도의 어업 생산량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9년 790톤 464백만원이 었으나 1992년 1,007톤 1,948백만원으로 연평균 740톤 1,330백만원을 생산하고 있다.

어업의 종류는 연안 유자망, 연안연승 연안 외줄낚기 등 135건의 허가어업 <표 2>와 2개의 면허어업 <표 3>이 있다. 어선 세력은 1992년에 13척 47.6톤이었던 것이 1993년에는 3척 9.73톤으로 감소하였다. <표 4> 어업인구는 어민 후계자가 1986년 이래 총 13명이고 <표 5>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수는 전업이 65가구, 겸업 559가구로 1989년부터 전업가구수가 감소하고 겸업가구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최근에 우리 나라에서 3D현상이 나타나서 어선에 승선하는 어업에는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하여 주고 있다.

<표 1> 우도의 연도별 어획고

단위 : kg, 백만원

연 도	수 량	금 액
1979	791,424.95	464,894,539
80	553,560.1	700,089,983
81	583,579.6	915,626,325
82	819,737	1,127,327,701
83	632,747.6	1,030,603,103
84	805,798.7	1,137,008,162
85	993,646.5	1,092,659,701
86	910,274.2	1,498,399,536
87	898,870.2	1,506,115,508
88	594,799.9	1,708,708,644
89	660,327.2	1,673,494,623
90	671,832	1,835,153,491
91	620,991.4	1,993,810,502
92	1,007,451.5	1,948,468,575

<우도면사무소 통계자료>

〈표 2〉 해면어업허가 및 신고처분

단위 : 건수

어업의 종류			건 수
총 계			135
허가 어업	계		130
	연안유자망	연안유자망	26
	연안안강망	연안안강망	-
	벌선선망	벌선석조망	-
	연안연승	연안연승	39
	연안채낚기	연안외줄낚기	40
	연안통발	연안통발	6
		초호(분)	2
	분기초망	분기초망	15
		연안투망	1
	봉수망		1
		소계	
		일본조초	

〈우도면사무소 통계자료〉

〈표 3〉 면허어업 현황

어업별	단위	우도	계	우도		
				수협	어촌계	개인
계	건수					
제1종 공동어장	1	1	1		0	
제3종 공동어장	0	0				
정치어업	1	1	1		0	
양식어업	0	0				

〈우도면사무소 통계자료〉



〈표 4〉 톤수별 어선세력

동 력 선			1톤 미만	1~ 5톤	5~ 10톤	10~ 20톤	20~ 30톤	30~ 50톤
연 도	척 수	톤 수						
86	1	2.20						
87	1	6.67			1			
88	8	29.48		6	2			
89	7	27.37		6		1		
90	6	22.95		5	1			
91	10	38.91		8	1	1		
92	13	47.6		11	2			
93	3	9.73		2	1			

〈우도면사무소 통계자료〉

〈표 5〉 어민 후계자 지원 현황

연	도	인	원
	86		1
	87		4
	88		2
	89		1
	90		1
	91		1
	92		3
	계		13명

〈우도면사무소 통계자료〉

〈표 6〉 어업종사자별 수산업 가구 및 가구원

연도	가 구		
	경 영 자 가 구		
	소 계	전 업	겸 업
82	589	65	524
83	563	65	498
84	512	65	447
85	512	65	447
86	551	59	492
87	594	60	534
88	594	60	534
89	594	103	491
90	594	103	491
91	594	103	491
92	624	65	559

〈우도면사무소 통계자료〉

## 참 고 문 헌

1. 高京玉, 濟州道 水産業의 史的考察, 濟州大學 漁業研究誌, 1970, pp. 17~34.
2. 이기완, 제주도 해양생물의 지방명 1. 조류, 제주대학 해양자원연구소, 1981, pp. 63~66.
3. 邊昌翊, 鄭龍晉, 盧洪吉, 濟州島 沿岸의 海況特性에 關한 研究, 1983, pp. 59~64.
4. 제주도지(하권), 제주도, 1982, pp. 147~162.
5. 金命年, 現代韓國水産史, 水友會, 1987, P. 116, PP. 186~199, pp. 413~429.
6. 북제주군, 북제주군지, 1987, p. 250, pp. 530~533.
7. 남제주군, 남제주군지, 1986, pp. 519~523.
8. 제주도지(제2권), 제주도, 1993, pp. 825~863.

## 제 2 장 牛島海에 뜬 도항선

本面の 海上交通은 濟州本島와의 사이에 우도면 서광리 하우목동 포구에서 구 좌읍 종달항까지 2.8km, 천진리 천진동 포구에서 남군 성산을 성산항까지 3.8km 폭을 둔 牛島水道의 交通이 주가 된다. 惡天候인 때에는 선박의 피항 장소로도 많이 이용되며 조류도 비교적 빠른 곳이다.

朝鮮朝의 憲宗 8년(1842년)에 처음으로 入耕許可가 있었던 것으로 봐서 이 시기로부터 濟州本島와의 주민의 왕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본다. 朝鮮朝의 海上交通은 원시시대로부터 사용되어 왔던 筏船(뗏배, 태위, 터위, 태우 등으로 불리운다)으로 주로 왕래했을 것이다. 이 筏船은 古代로부터 韓半島 全水域에서 사용되어 왔으나 현재에는 근대화의 물결에 밀려 거의 찾아 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1938년의 濟州道誌要覽에 依하면 當時의 제주도의 어선 총수는 1,687隻이며 이 중에는 筏船이 541隻이나 포함되어 있어서 전 어선수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봐서도 당시의 筏船을 漁業用으로 뿐만 아니라 제주도 연안의 유일한 해상교통 수단으로도 사용 되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筏船은 原木을 연결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航海手段으로는 속력이 늦어서 아무리 빨리 櫓를 저어도 한 시간에 1해리 정도밖에 가지 못한다. 風潮流가 약간만 있어도 항해가 곤란하다. 그러나 선박의 발달의 기원이라는 점에서 古代에는 이 筏船으로 제주도에서 육지부로 왕래 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여 1985년 10월 4

일부터 10일까지 제주신문사 주최,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주관으로 筏船을 사용하여 北浦를 출항하여 全南 康津港까지의 實驗航海의 結果는 筏船에 의한 제주해협 橫斷의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제주본도와 牛島 사이의 왕래는 고대로부터 筏船으로 이용되었으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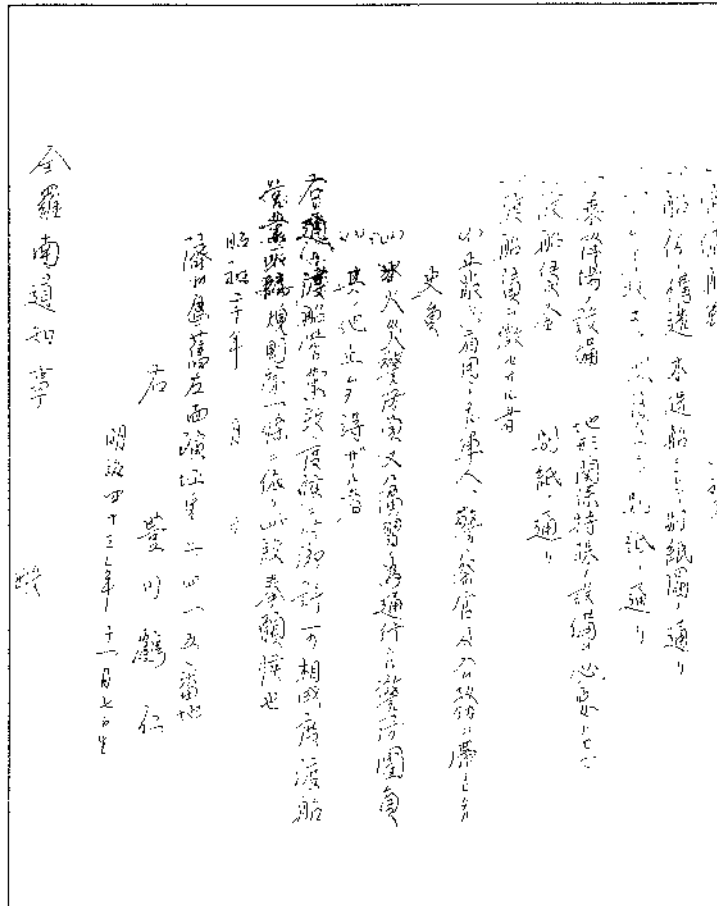
牛島 水道는 滿潮時는 北西流가 3해리 정도 흐르고 干潮時에는 南東流가 2해리 정도 흐르고 있으므로 각종 선박의 항해시는 이와같은 조류의 흐름을 잘 이용해야 한다.

筏船 다음으로는 風力을 이용하는 帆船이 등장하게 되는데 제주해협을 왕래하는 帆船은 고려시대로부터 조선시대에 걸쳐서 많은 항해 기록이나 표류기록들이 있다. 따라서 당연히 牛島 水道의 帆船 왕래도 생각할 수 있다.

금세기에 들어 日人들이 출입하면서 日本式 帆船이 등장하게 되어 구좌읍 종달리와 牛島 드릉고지를 이들 帆船들이 왕래하게 되었고, 당시의 이 帆船은 돛대가 2本 또는 3本이었으며 여객 정원이나 정시 운항 등은 없었고, 潮時와 旅客數에 따라 1일 1왕복 정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筏船時代, 帆船 시대에 이어 發動機時代가 시작된다.

1930년대에 들어서 생활수준이



우도호 허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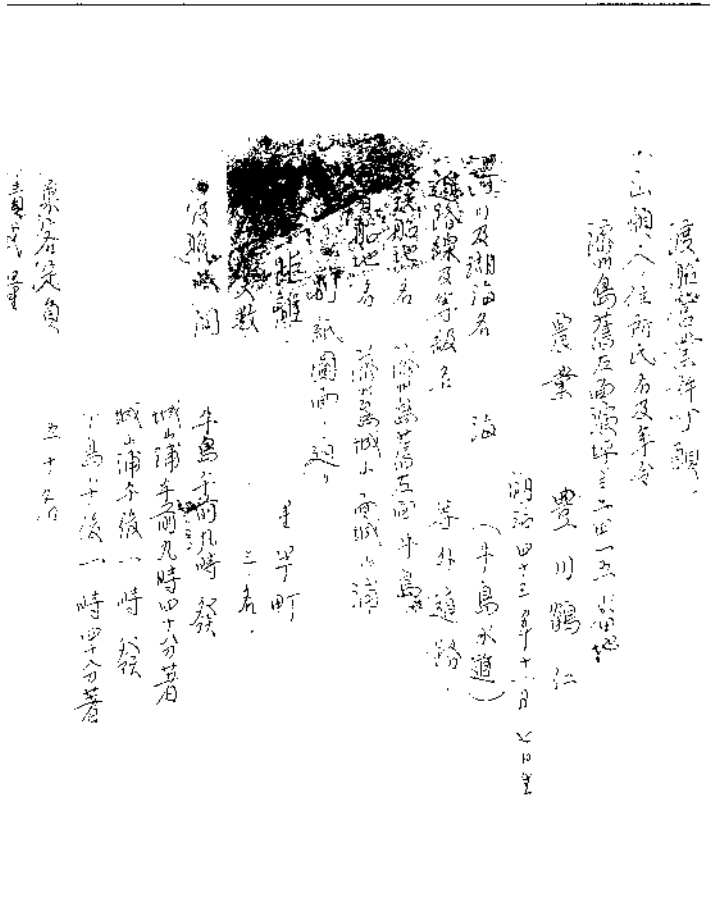
높아지고 육지출입이 빈번해지자 1935년 임학인, 김원배, 고좌화 3인 출자로 우도 최초의 동력선인 4.73톤의 우도호를 건조 우도~성산~종달노선의 정기항로를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운항하는 도항선으로 인정받았으며, 이때부터 성산포항을 거점으로 도항선을 왕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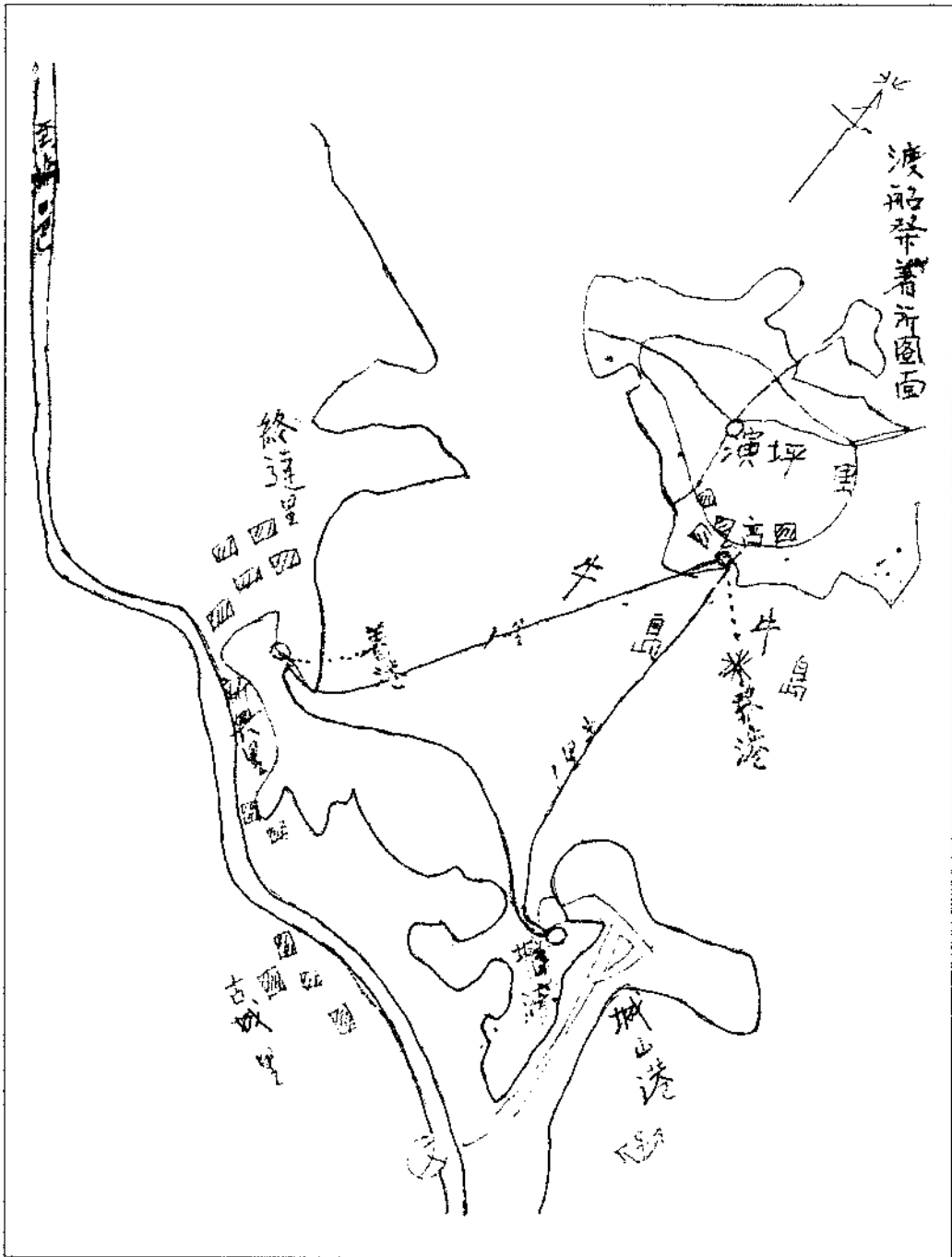
그러나 기선 소구 15마력의 기관으로는 곤란하여 돛을 겸하여 이용 일일 2회의 정기노선을 운항하였다.

이 시기는 우리 민족이 압을했던 일제치하의 시대로 풍천학인(임학인씨의 개명)의 이름으로 허가를 받았으니 시대의 아이러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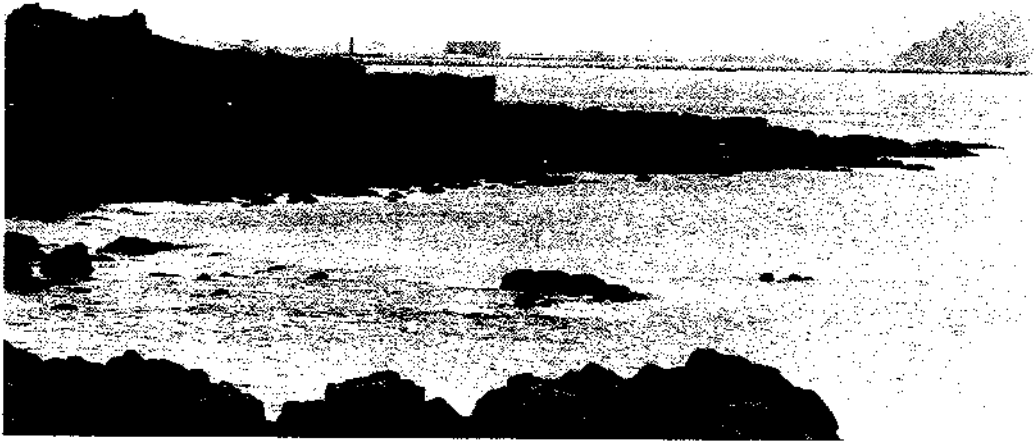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1961년 유신정부 이전까지 국내 사정의 혼란으로 행정기관에 도항선의 정식허가를 받지 않고 운항하였으며, 또한 동선박이 적자 경영난에다 잦은 기계 고장으로 부품구입 및 수리를 못하여 돛으로만 운항하게 되었고 1949년(임학인, 흥한택)과 1954년(임학인, 흥두행) 2차례나 출자자가 변동되기도 하였다.

1956년 오영배씨가 4.2톤의 동력선(소구 10마력, 돛 겸용) 염포호를 구입 1년 6개월간 운항하였으나, 운영난으로 1958년 흥한오씨가 인수 범선으로만 1년 5개월간 운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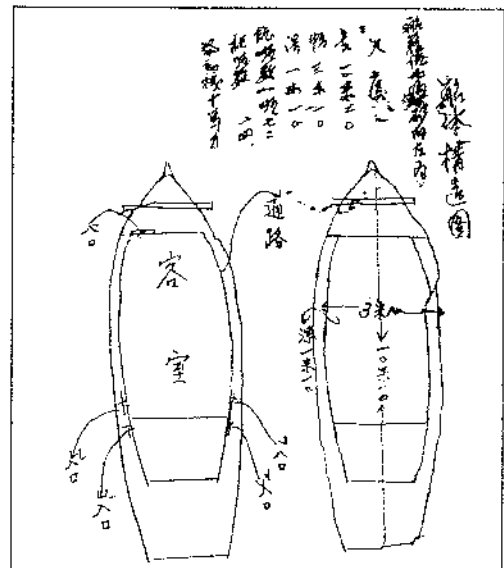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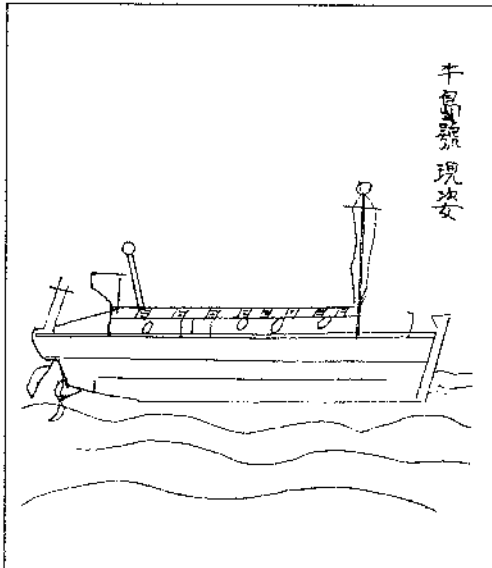




우도호 운항 노선



드룡코지 전경. 1930년대 이전에는 日인들이 이 곳을 통해 종달리 포구로 왕래하였다.



우도호 도면

1960년 광신희(김노대, 강희숙)는 도항선의 동력화(7.5톤 소구 20마력)를 이룩하였으나, 운항도중 발생한 사고는 우도 도항선 이래 최대의 참사로 기록되었다. 1960년 1월 20일 세화 오일장에 다녀오던 중 승객 및 화물과적으로 하도포구에 이르렀을 때 침몰하여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6개월이란 단명의 운항을 기록하였다.

이후 협동(6.2톤 15마력)·협신(7.5톤 20마력)호 2척을 흥한오, 신인홍, 김두정, 양성주 4인 공동으로 1년 4개월간 운항하였다.

1961년 임학인은 선박재원 18.5톤, 추진기관 30마력의 태인호를 건조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북제주군수의 인가를 받아 1년 3개월간 운항하다 매도하여 1962년 추자도 도항선으로 이용됐다.

1962년 북제주군소유 선박 창신희를 7인(임학인(사망으로 후에 임봉순), 흥한오, 신인홍, 김두정, 양성주, 김팽경, 강희숙)의 협업으로 임대 제주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운항하였다. 협업자들은 15일간 선장 순번제와 당해 선장이 선원 2인 의무고용 및 사고시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는 자체도항선 운영규칙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으나, 결국 1963년 7인의 협업운영체가 결렬되고, 흥한오, 임봉순에게 모든 임대지분을 이양하게 됐으며, 그 이후 창신희는 7년 2개월 운항을 마치고 폐선처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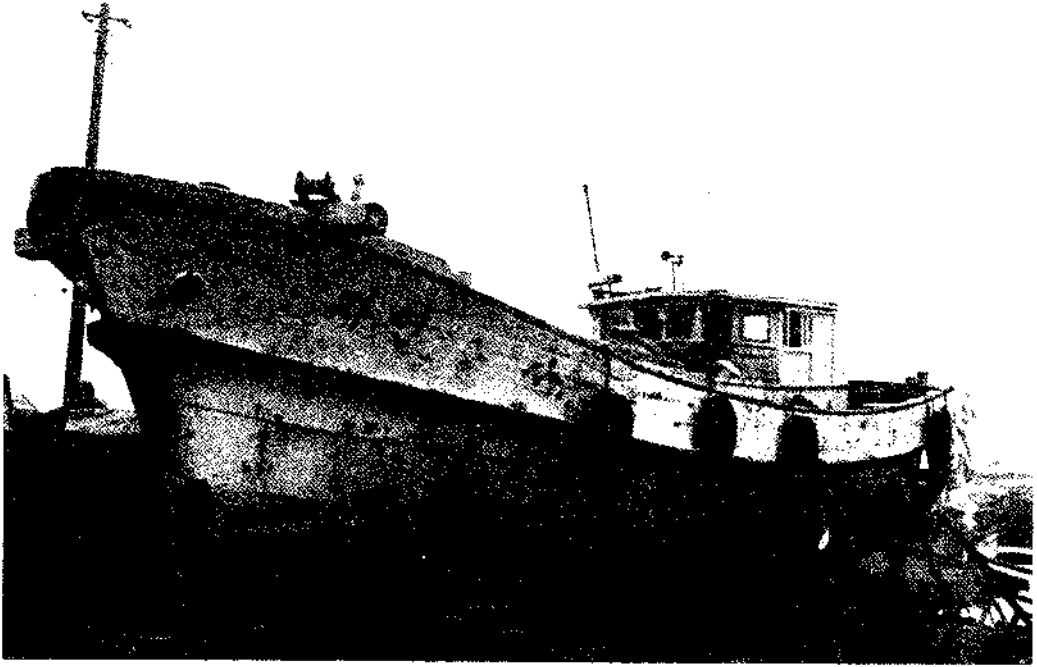
행정선인 창신희 이후 1968년 어선으로 이용하여 팽제호(정성준 소유, 4.7톤)가 1년 2개월간 임시운항하였다.

1969년에는 임봉순, 흥한오가 15.12톤급 자연호를 건조하고 북제주군수의 허가를 받아 취항하였으며, 1973년 5월 10일 동천진동항(우도항)에 대해 우도 도항선출입항으로서의 어항시설 사용허가를 제주도지사로부터 정식 허가받았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민이 본도와의 출입이 잦아지고 도항선 이용객수의 증가로 자연호만으로는 한계를 드러내게 되어 1983년 6월 9일 17톤급 연봉호를 복수로 취항하여 운항했다.

1986년 6월 자연호의 노후로 9년 2개월이 운항을 마치고 협성호를 대체선으로 취항하였으나 계속되는 도항선경영난으로 1989년 12월 강영길(제주시 화북 거주)씨가 연봉, 협성호를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 자인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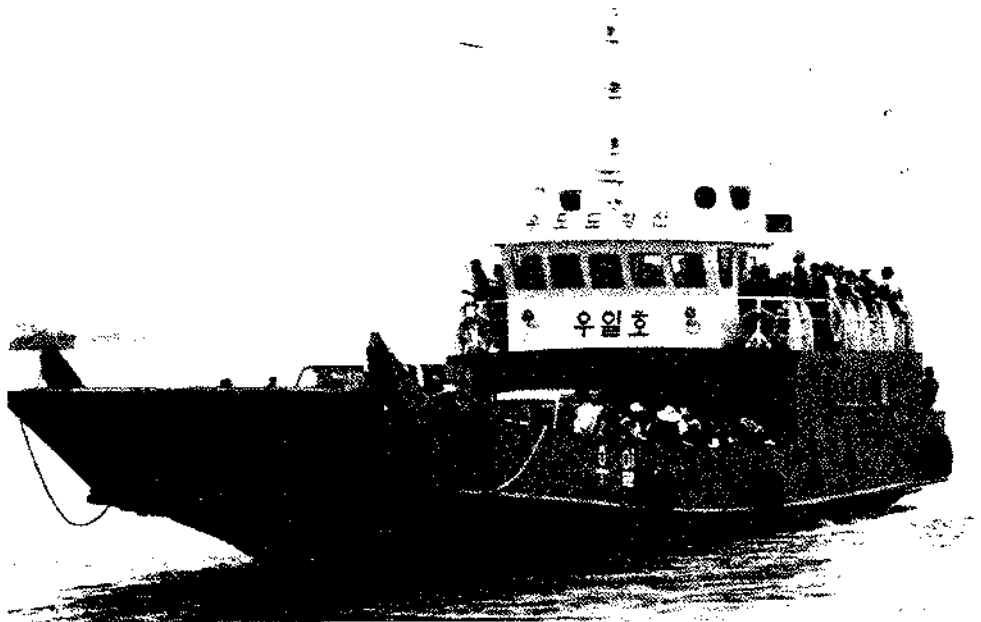


협성호 ▼

지금까지의 도항선은 어선의 형태, 크기 등에서 벗어나지 못해 우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적기 출하하지 못해 우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다.

1988년 10월 강권일씨가 59톤급(75마력 2기, 강선)화물 운반선인 덕일호를 취항하게 됨에 따라 각종 농수산물 및 우도개발을 위한 건설자재를 대량으로 운송이 가능하여 우도산업발전의 계기를 이루었으며 또한 여객(강영길)과 화물은 바지선 운송으로 이원화를 이루게 되었다.

1992년 5월 복제주군과 강영길의 합자로 여객(95명)과 차량을 동시 운송할 수 있는 57톤급(270마력 2기, 강선) 우일호가 취항함에 따라 양대 도항선 모두 대형화, 강선화, 고속화로 여객선의 경우 일일 6~10회 왕복 운항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우도의 교통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우 일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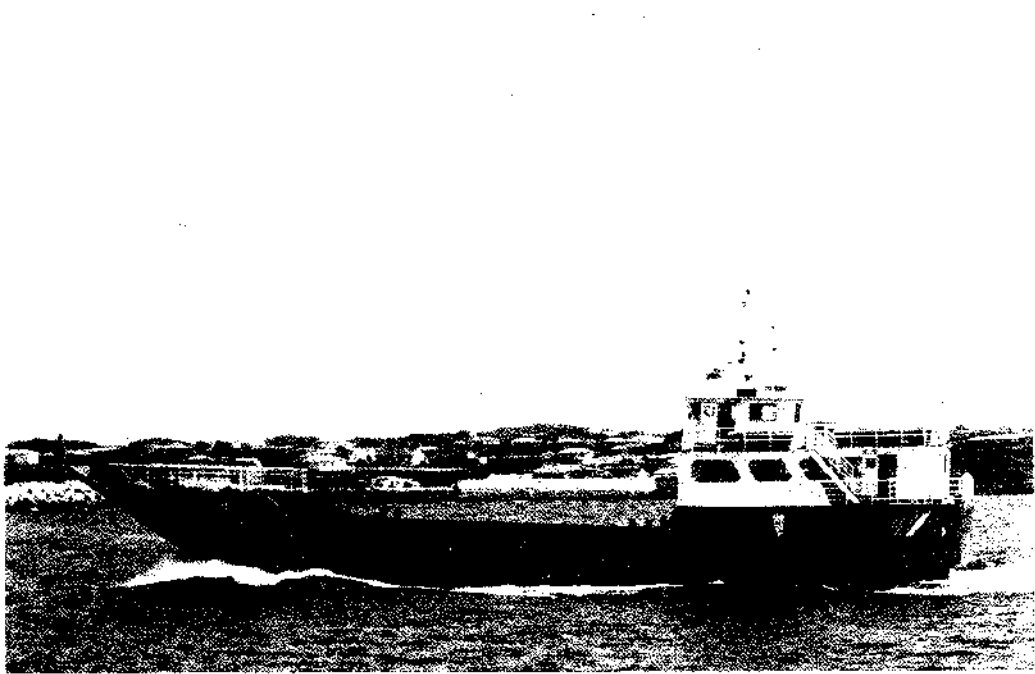
날로 늘어나는 우도개발의 욕으로 각종 산업발전재료를 운반하는 데 덕일호의 한계가 드러나 1993년 8월 63톤급(18마력 2기) 덕일 3호(강순일, 강권일 공동

소유)를 추가 취항했다.

1994년 12월 임봉순씨가 우일호(북제주군수 소유)임대권을 강영길에게 인수 운영하고 있다.

우도산업의 발전으로 생산된 농수산물과 건설자재 운송 및 폭발적인 관광 래도객이 늘어나게 되어 1994년 11월 덕일호를 매도하고,

1995년 5월 승객 81명, 87톤급(325마력 2기) 덕일카훼리(대표 강순일)를 종달~우도 노선간 취항하고, 7월 승객 135명, 120톤급(460마력 2기) 우일카훼리(대표 임봉순)를 각각 취항하였으나 양대 도항선이 무리한 경쟁으로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우일 카훼리

1996년 5월 양대 도항선의 합의에 의한 합병으로 여객선과 화물의 동시 운송으로 일일 왕복 12회의 정기운항으로 승객 및 차량의 연평균 증가율(1992~1995년) 39%와 174%의 증가로 우도 도항사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 연도별 도항선 승선 및 차량 운송현황

연도별 수송명	'92	'93	'94	'95	'96. 6월 현 재	연 평 균 증 가 율 ( '92-'95)
승 객	90, 183	111, 613	167, 445	240, 601	247, 841	39%증가
차 량	1, 501	3, 492	14, 481	25, 505	12, 088	174% 증가

牛島의 南東쪽에는 牛島燈臺가 있다. 이 牛島燈臺는 1906. 3. 부인등대로 준공되어, 1959. 9. 유인등대로 개량, 1960. 3. 광파표시 개량, 1960. 3. 음파표시 설치(에어싸이렌), 1981. 12. 동대시전(AC전원)인입을 바쳐 초현대 시설을 갖춘 등대로 발전했다.

제주도 최초의 우도 등대는 소속기관도 1906. 12월 대한제국 세관공사부 등대국으로 시작해서 1946. 11. 운수국 해상운수국, 1948. 11. 교통해운국, 1955. 2. 해



우도봉 정상에 있는 등대

무척 해운국, 1961. 10. 교통부 제주지방 해운국, 1976. 12. 제주지방 해운항만청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변에 나란히 있는 巨文島 등대(1905년 4월 준공)와 馬羅島 등대(1908년 2월 준공) 등과 같이 日帝가 당시 한반도의 남쪽으로부터 西海를 경유하여 한반도 전역을 장악하려는 길잡이 役割로 시설한 것이었으나 지금 이 牛島燈臺는 도항선 운항뿐만 아니라 濟州島의 東側關門의 나침반으로 지대한 役割을 하고 있다.

한편 憲宗 11년(1845년) 秋史 金正喜의 流配地生活을 그의 형제에게 보내는 서한 중에는 다음과 같은 牛島에 관한 기록이 있다.

「去念後，英吉利船，來泊於旌義之牛島，距此爲近二百里，而彼船則別無他事，只是一過去船，而一島騷擾，不能底定，州城如經一亂，北中不能開論，辛不至如州矣」

지난 달 25일에 영국선이 정의현 우도에 와서 정박했는데 이곳(대정)과는 2백 리가 되어 별일이 없다. 그러나 그 배가 한번 지남으로 온 섬이 불안에 떨어 민심이 안정되지 않았고, 제주성은 마치 난리를 겪은 것처럼 시끄러웠다. 서울에는 그런 소식이 전해져 논의가 안 됐는지 근심스럽다. (오문복 번역)

이 글의 뜻을 다시 韓國水路史에 있는 濟州道實測의 내용으로서 설명해보면 당시의 상황을 더욱 자세히 알 수 있게 한다. 「1845년(憲宗 11년) 6월 22일 英國軍艦 사마랑號(Samarang)는 艦長 벨처(Capt. Sir Edward Belcher)의 指揮下에 濟州牧 旌義縣 止瀾浦 牛島에 나타났으며 旌義縣監에게 英國皇帝의 命을 받아 1843년경부터 極東各處의 船舶의 安全航海를 위한 水路測量을 施行하고 있으며 6월 4일 中國의 廣東을 떠나 呂宋과 琉球를 거쳐 온다고 말하였다.

이 水路測量船은 牛島 주변을 비롯하여 우도 수도를 精測하였으며 西進하여 別防鎮, 魚登浦, 朝天鎮, 咸德浦, 禾北鎮, 建人浦, 竹島, 桃源浦, 摹瑟浦, 馬羅島등을 寄泊하면서 제주도를 일주하며 20일간 測量한 후 7월 16일 巨文島로 향하였다.

이 測量原圖는 全紙 6장을 1組로 한 大型原圖이며 36,000분의 1의 縮尺으로서 당시의 사마랑호의 탁월한 航海術과 測量術을 말해 주고 있으며, 특기할만한

것은 牛島 부근은 거의 완전한 水深稠密度를 유지하여 精測하였으며, 牛島에서 제주항까지는 航跡測深을 하고 있다. 牛島를 비롯한 제주도의 근대적 측량법에 의한 최초의 海圖라고 할 수 있는 점이다.

또, 이 原圖에서 지명은 牛島→Beaufort Island, 飛揚島→Anderson Island, 竹島→Eden Island, 加波島→Barloan Island, 兄弟島→Marryat Island, 馬羅島→Giffard Island, 濟州島→Quel Part Island로 표기하고 있다.

수많은 사연을 안고 오늘날도 우도와 본도 사이 牛島海에는 바닷물이 들고 난다. 여기서 지나칠 수 없는 것은 1845년 6월 22일 영국군함 Samrang호가 牛島 부근 수심을 완벽하게 측량했다는 사실이다.

사마랑호가 우도를 Beaufort Island(풍력 등급을 Wind-Scale이라 하는데 Beaufort's Scale에서는 풍력 등급을 0에서 12급까지 분류함. 따라서 문제의 Beaufort는 Sir Francis Beaufort라는 사람 이름이며, 비양도는 동화작가 안텔센, 죽도는 에덴 등으로 표기)라 표기한 牛島海는 오늘날 말이 없다.

그러나 언젠가 우도와 성산, 우도와 종달사이에는 방파제가 축조되고 牛島海는 제주 제1의 항구가 될 것이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성공하려면 공항, 항만의 확대가 시급하다. 제주공항, 제주항(산지항)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고, 더욱이 제주항은 자연적인 조건이 전무한 상태여서 돈으로 방파제를 쌓고 있다.

지도를 펴 보면, 牛島海가 왜 항구가 되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왜 영국인들이 1845년 6월 22일 牛島海를 면밀하게 수심, 풍향, 풍속을 측량했는지 곰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牛島는 濟州島의 방파제인 것이다.

## 제 3 장 海 女

### 제 1 절 牛島海女와 海女社會

우도면은 제주도내에서도 해녀물질이 썩 활발한 곳이다. 제주 해녀라면 너무나 유명해서 전세계에서 주목한다. 연약한 여인들이면서도 시퍼런 바다, 곧 第一種 共同漁場에 뛰어들어 해산물을 캐어내는 유별난 직종이기 때문이다.

특수한 장비를 갖추지 않은 이른바 裸潛漁業에 따라 바닷속 깊이 12미터까지 들어가 심하면 2분 남짓 견디면서 해산물을 캐어내는 기량이 신비스럽다.

이 세상에 직업으로서의 해녀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에만 분포되었다. 우도면의 경우는 더욱 해녀가 밀집되었고, 물질도 극성스럽다. 우도면, 곧 소섬 주변이 황금어장을 이를 뽐내며 주민들의 유다른 근면성과 굼뜬한 삶의 의지가 바탕에 깔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 해녀의 제 모습을 살피기 위해서 우도면의 해녀를 주목하게 된다.

한국과 일본 밖의 어느 나라에도 직업인으로서의 해녀의 분포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 까닭은 아직 시원히 밝힐 수 없다. 어쨌든 분포지역이 이처럼 한정되었음은 해녀의 존재를 더욱 珍重하게 한다.

한국과 일본에만 흩어져 있는 해녀의 수효는 얼마나 될까. 그 통계는 막연하지만, 한국에 약 2만, 일본에 약 5천, 도합 2만5천명 쯤으로 추산된다.

우도면에는 현재 6백명 내외의 해녀들이 불길에 전력투구한다. 牛島法人漁村

契의 집계에 따르면 1992년말 현재 어촌계원수는 479명(남 67명, 여 412명)인데, 412명의 여계원은 모두 해녀다. 潛在海女까지 합치면 실제해녀수는 412명의 1.5배인 약 6백명으로 추산된다.

다른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우도면에서도 해녀는 激減一路에 놓였다. 어촌계의 통계에 따르면 1973년 현재의 공식적 해녀수는 896명이었는데, 불과 9년 사이에 412명으로 줄어 들었으니 46%로 감소된 셈이다.

우도면의 해녀들은 여느 해녀들과 마찬가지로 농사도 더불어 짓는다. 제주도 도처의 해녀들은 거의가 농사를 짓는 범상한 여인들이다. 해녀라면 흔히 평범한 농어촌의 여인들과는 유다른 여인들로서 물질만 치르면서 사는 여인들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평범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물질을 치른다. 제주 해녀들은 실로 독수리의 두 날개처럼 물과 바다에 널따란 밭을 지닌다.

漁村契員 統計

漁村會別 區分	計	天津里		西光里		五逢里					朝日里	
		東天津	西天津	上牛目	下牛目	周興	錢屹	三陽	上古水	下古水	飛揚	迎日
計	479	59	33	26	53	42	39	35	31	33	69	57
男	67	10	1	3	8	8	4	4	8	5	6	7
女	412	49	32	23	45	34	31	31	23	28	63	50

· 1992. 12. 31 현재  
· 자료 : 牛島法人漁村契

先天的 血統에 따라서 놀랄만한 물질 솜씨가 갖춰지는 것도 아니다. 해녀들에게 遺傳的 素因이라곤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도면의 소녀들이 열심히 물질을 치르고 기량을 익히면서 제 학비는 스스로 마련하는 사례가 흔했다는 점에서도 입증된다. 학비를 스스로 마련할 뿐더러, 자립하기 위하여 저금하는 소녀들도 우도면에서는 흔했다.

우도면의 소녀들은 어렸을 때 물질을 익히고 제 용돈을 스스로 마련해서 자립



할 뿐더러, 少女家長으로서 家計를 꾸리는 사례도 드러나서 전국적으로 화제를 뿌린다. 올찬 自彊不敗意識의 훌륭한 본보기다.

소녀를 포함한 여성의 노동력이 家計에 크게 이바지하기 때문에 우도면에서는 제주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養女制度가 변졌었다.

말하자면 한본토의 소녀를 부모의 승락을 얻고 데려다가 친자식으로 入籍시키고 가족처럼 지내면서 집안일을 함께 거들게 하고 물질을 시킨다. 친자식처럼 학교도 보내고 결혼도 시키면서 굼뜬하게 자립하게 된다. 이제도 동기간에는 혈육처럼 지내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國文學報》 제5집, 제주대, 1973). 해녀마을의 養女制度는 일본에서도 가끔 보고된다(瀨川清子:《海女》, 112면, 未來社, 1970).

소녀의 노동력이 우도면에서는 家計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해산물 채취로 온 주민이 총동원되는 解警(許採) 때에는 국민학교에서도 며칠 동안 방학하는 관례가 있었다.



해녀들이 물질가는 모습

우도면의 바닷가에는 어린 소녀부터 노파에 이르기까지 예로부터 물질을 그야말로 獻身沒入할 뿐더러, 직업적 了矜心도 유다르다. 한여름철 자그만 해녀연장들을 쟁기고 바닷가에서 온종일 물질을 즐겁게 익히는 국민학교 어린이들의 건강하고 싱그러운 모습은 1970년대초까지만 해도 우도 해안에서 흔히 보이는 광경이었다. 사회의 改變이 超速化하는 오늘에도 그 예사롭지 않은 勤儉·自立의 생활 태도는 드높이 칭송하고 계승되어야 타당하다.

우도면에서는 배를 타고 나가서 치르는 <벧물질>은 많고 다들 <갯물질>이다. <갯물질>은 해녀들이 바닷가에서 그냥 헤엄쳐 어장으로 나가서 치르는 물질을 말한다.

우도면의 第一種共同漁場, 곧 해녀어장은 바닷가의 열한 동네별로 나누어졌다. 원래는 우도면의 바다 어디든지 우도 해녀라면 누구나마 입어할 수 있는, 곧 共同所有의 慣行이 이어져 오다가 광복이 되면서 열한 동네별로 분할되었다.

해녀들은 제 동네 앞바다에 입어할 권리를 지니는 한편, 그 어장의 잡초를 제거하는, 이른바 <바당풀캐기> 등을 철저히 치르고 해산물의 부당채취를 감시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어찌다가 떠오르는 시체처리도 예로부터 전해지는 중요한 의무다.

<바당풀캐기>에 참여하는 일은 철저한 의무로서 만약 이 의무를 어겼을 때에는 벌금을 내어야 입어할 수 있다든가 그 규제가 엄격하다. 그 규제의 관행은 동네마다 좀 다르다.

동네와 동네 사이의 어장 경계는 <굵>이라 한다. 그 <굵>의 표지는 <코지>(串) 또는 해안 바위에 도끼로 찍어 놓은 점과 바닷속 암초인 <여>를 직선으로 연결한다든가 하는 갖가지 방법이 동원된다.

제주도의 술한 해안마을과 마을 사이에서 漁場紛糾가 일었던 것처럼, 우도면의 동네와 동네 사이에도 가끔 漁場境界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다.

그 가운데도 迎日洞 앞 <너런지바당>의 入漁權을 둘러싼 분쟁은 1970년대 전반기에 법정문제화되기도 했다. 그 원인이나 경위를 간명하게 요약하기는 지난하다. 그만큼 물질이 소중한 생업이요, 그 경위가 열기설기 복잡다단하기 때문이다.

入漁에 따른 모든 관행은 열한동네가 제각기 동네별로 탄탄히 다져 나간다. 동

네벌로 마을공동체가 이루어져서 그 결속이 굳건할 뿐더러, 鄉約과 시행규정을 제각기 설정하고 있다.

漁村契나 婦人會(海女會·潛嫂會) 역시 동벌로 조직되어 있으며, 향약 외의 시행규정 역시 慣行에 근거하면서 아주 상세하다. 이는 《濟州有人島學術調查》(濟州文化放送, 濟州道, pp. 354~357, 1991)에 소개된 바 下牛目洞의 시행규정을 참고하더라도 이내 파악되리라 본다.

下牛目洞의 시행규정에서 보면, 해녀의 입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상세히 규정된다. 곧 그 제28조에는 “부인회원은 입어서 자기 힘에 알맞는 할석 한 덩이씩을 갖고 바다에 투석하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바다 가꾸기에 정성을 쏟고 있다.

또한 제34조에서는 入漁權이 상실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1. 준회원으로서는 입어행사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2. 혼인으로 인하여 타지방에 거주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상이 된 자. 단, 당해년도 천초채취는 허용기로 하며, 타지방에서 혼인하여 입주한 자는 입주하는 다음 연도부터 채취권을 갖는다”고 그 규정이 구체적이다. 여기 ‘준회원’이란 정회원 가호내의 직계가족과 셋방을 살고 있는 자를 말한다(제31조).

이 규정에는 漁場의 경계, 禁採期 규정, 우뭇가사리 채취할 때의 病故로 말미암은 代理採取의 규정, 우뭇가사리 채취할 때의 조업규정, 농번기의 입어 금지, 감사원 규정 등을 일일이 담고 있다.

오랜 세월의 慣行과 경험에 의하여 自生的으로 꾸며진 이 규정을 해녀들은 법을 이상으로 잘 지킨다. 농촌보다 어촌은 훨씬 法的이며, 물질이 극성스러울수록 더욱 그 自生的 規程은 간간하고 더욱 法的이다.

우도면에서 독립된 해녀로서 물질을 시작하는 연령은 1973년을 기준한다면 평균 15세이며 달마다 물질하는 일수는 4월에서 10월 사이는 10~16.5일, 11월에서 3월 사이는 4.4일에서 7.3일이다.

우도면에서는 해녀 물질에 따른 수입이 절대적이어서 흔히 ‘돈섬’이라 불리어진다. 1992년도의 해산물 위탁판매를 기준한다면 漁船漁業에 따른 소득이 11%에 불과한 데 비하여, 海藻類(61%), 貝類(12%), 기타(8%)를 통틀어 해녀소득은

81%에 이른다(牛島法人漁村契 통계).

우도면의 해녀 물질이 극성스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우뭇가사리 등의 해조류가 풍부하게 자라나고 주민들의 勤儉·自立意識이 유다르기 때문이다. 곧 풍요로운 수산자원과 주민들의 근면성이 합치됨으로써 빼어난 해녀작업이 오랜 세월 성행해 온 셈이다.

우도면의 우뭇가사리는 질이 좋고 생산량이 엄청나서 제주도내 총생산량의 절반을 웃도는가 하면, 우도 바다는 넓미역의 두드러진 群落을 이루고 있으며 갈래곰보와 벵쿨은 많이 솥하게 생산된다.

1960년대말까지만 하더라도 6월 중하순이 되어 넓미역이 解警(許採)되면 上·下牛目洞 앞바다는 넓미역을 캐는 배들이 솥하게 몰려들어 일주일 남짓 그야말로 壯觀을 이루었다.

우도의 어선을 비롯하여 終達·始興·城山·禾北·爲美 등지에서 1백여척이 몰려들어 넓미역을 캐는 광경은 흡사 일대 퍼레이드를 벌이듯 했다. 줄줄이 몰려든 이 배들은 일제히 넓미역을 건진다.

해녀들은 해녀들대로 15m~20m 깊이로 무자맥질하면서 넓미역을 쾨다. 캐어 놓은 넓미역을 나르고 이를 말리느라 해녀 가족들도 일제히 바다로 몰린다. 해녀와 해녀 가족들은 동이 트자 바다로 몰리고, 어린이들은 조반을 짓고 바닷가로 달린다.

이른바 넓미역철에는 바닷가가 온통 人波로 덮인다. 넓미역을 캐는 해녀들, 이를 지나르는 남정들, 이를 바닷가에서 말리는 여인들, 식사를 나르는 등 뒷바라지하는 어린이들이 뒤섞이어 바닷가는 그야말로 사람들로 뒤덮여서 장엄한 교향악을 이룬다.

이제는 이런 광경도 옛 풍경으로 사라졌다. 남해안에서 양식미역이 1973년 전후해서 다량 생산됨으로써 이른바 <츄메역>·<돛메역>이라는 자연생의 미역을 캐는 일은 점차 사라져 가면서 넓미역 캐기도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요마직에 이르러 제주도의 해녀사회는 産業社會化의 거센 물결에 따라 급격한 변화에 직면했는 바 우도면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첫째 해녀수의 激減現象이다. 제주도 수산당국의 공식적 통계에 따르면 1970년에 비하여 1990년에는 4분

의1로 해녀수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된다. 곧 1970년에 23,930명이던 해녀수호가 1990년에는 5,951명으로 드러난다. 지금의 연령분포는 대부분 40대 이상, 특히 50대 60대에 쏠렸으니 고령화추세가 두드러지고, 앞으로 30년쯤 흐르게 될 때 제주해녀의 맥락은 아주 끊기게 될지 모르는 위태로운 고비에 놓였다. 우도면의 경우 우도 마찬가지여서 1천명 이상이던 해녀가 412명(1992년말)으로 줄었다.



예전의 해녀

둘째 세월의 흐름에 따라 海女服과 海女器具 역시 변화를 일으켜서 재래의 해녀복이 합성고무로 탈바꿈된 것은 1973년이 고비가 된다. 그 당시 우도해녀 가운데 고무옷을 입은 해녀수는 약 5분의 4에 이르고 있었다.

합성고무옷을 입게 되자 물질하는 시간이 불어나서 체력소모가 극심해지고, 鎮痛劑·鎮靜劑를 남용함으로써 직업병이 급격히 불어나는 부작용이 우도 해녀들 가운데 적잖게 드러난다.

셋째 채취물의 종류도 변화를 일으켜서 특히 우도면에서 대량 생산되던 넓미역

과 미역을 캐지 않는 반면, 1980년대에 들어서서 갈래곰보와 벗볶은잎이 흔히 생산된다. 제주에서 갈래곰보는 '鵝冠草', 또는 '독고달'이라 하며 벗볶은잎은 '고장풀' 또는 '고상초'라 하는데, 문혔던 인재가 느닷없이 발탁되듯 그 效用價値를 인정받기에 이른 셈이다.

## 제 2 절 牛島海女の 海外出稼

우도 해녀들은 海外出稼 역시 극성스러웠다. 1915년경에도 약 4백명이 한반도 각처로 나갔었다니 제주도내 다른 지역에 비하더라도 단연 압도적인 수효였다. 이제 우도면 주민 몇 사람의 出稼經驗을 소개함으로써 그 實相을 밝히려 한다.

### 1. 조완아의 出稼

조완아노파(79)는 天津里 東天津洞의 大上軍 해녀로서 친정은 舊左邑 下道里다. 첫 바깥물질, 곧 <초용>으로 對馬島에 나가기 시작해서 국내와 곳곳을 누벼 다녔다.

딸들이 釜山에 살아서 그곳에 드나드는 일이 흔하므로 동네에서는 흔히 <부산 할망>이라 부른다.

어렸을 때에는 水鏡을 안 쓴 채 물질하기도 했던 게 조노파로서는 귀중한 추억인데, 마을에서도 열두길 물질하는 大上軍으로 소문났다.

조노파는 열여섯살에 對馬島로 물질나가기 비롯해서, 열여덟에는 淸津으로, 스물넷에는 黃海道로, 스물일곱에는 忠淸道로 나갔었다.

열여섯살(1930년)에 對馬島로 떠날 때에는 친정인 下道에서 일본인 인솔자를 따라 화물선을 이용했다. 음력 3월에 나섰는데 닷새만에 도착하고 6개월 살다가 추석 직전에 돌아왔다.

對馬道에서는 주로 <벧물질>이었고, 소라·전복·미역을 흔히 캐었다. 함께 나간 동아리는 서너사람씩 짝을 지어 자취하며 지냈다. 對馬島사람들은 다정해서

절간고구마 가루로 만든 음식을 번번이 선사하곤 했는데, 해녀들은 스스로 캔 해산물을 담례로 전하곤 했다.

그곳에도 물질하는 해녀들이 있었다. 남성들도 펜티만 입어서 해수욕하듯 어설피 물질하는 게 이색적이었다. 그곳 바닷속은 거무죽죽하게 흐렸다.

조노파는 對馬島에 단 한번 물질다녀와서 돈 1백냥을 벌어들였다가 6백평의 밭을 샀다. 이제 해이려도 뿌듯한 보람이다.

스물넷(1938)에 黃海道 물질을 나갔다가 배 위에서 말뚝을 분만했던 일은 분명 사건이었다. 지금의 휴전선 가까이에 있어서 이 섬 저 섬 돌면서 이른바 <난바르>를 하던 도중이었다. <난바르>란 여러 날 동안 船上生活하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치르는 물질.

물질하려고 <물웃>을 갈아입는 순간, 느닷없는 産痛에 직면하더니 이내 애를 분만했다. 배에는 船主와 機關長 및 열두 해녀 등 열다섯 사람이 타고 있었다. 따라서 조노파의 분만 때문에 열다섯의 동아리가 <난바르> 물질을 중단하고 回航할 수는 없었다.

바람마저 거센 날씨였지만, 조노파는 일행의 도움을 받으며 배 위에서 조섭하며 지낼 길밖에 없었다. 그때 그렇게 낳은 애는 탈없이 잘 자라서 지금 선일곱이나 된다.

제주 해녀들은 이처럼 분만하기 직전에도 물질한다. 조노파의 경우처럼 배 위에서 분만하고, 항구나 길에서도 분만하는 사례가 띄엄띄엄 드러나서 유별난 화제를 낳는다. <베선어>·<축항둥이>·<길둥이>·<질둥이> 등의 별명도 이래서 붙는다. 이처럼 해녀들이 獻身沒入度는 높이 기릴 만하다.

<난바르>물질은 꽤 고달팠다. 배 위 화덕에서 장작을 때어 밥도 짓고 불도 쬐었는데, 조노파의 다리에는 장작불에 덴 자국이 이제도 거뭇거뭇 남겨졌다.

<난바르>물질하는 동안은 배 위에서 자다가 눈을 뜨자마자 이부자리도 그냥 두어둔 채 식전부터 물질은 시작되었다. 아침밥도 열시쯤 돼서야 船主가 좁쌀로 미음을 쑤어 나눠 주곤 했는데, 좁쌀밥도 제때에 배불리 먹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그럼에도 물질은 어둡도록 이어졌으니 썩 버거운 나날이었다.

거기에서는 소라·전복·홍합·해삼 등을 캐었고 仁川에 가서 팔곤 했다. 그

곳 출신의 해녀는 안 보였고, 가다가 팬티만 입고 어설피 불질하는 남성들이 눈에 띄었다.

인솔자들은 불질을 떠나기 앞서 해녀들에게 前渡金을 내주곤 했다. 돈을 미리 받아서 쓰는 편법인데, 어떤 해녀의 경우는 불질을 마치고도 벌이가 시원칠 못해서 그 前渡金마저 갚질 못한다. 그럴 때면 불모로 붙잡혀서 귀향하지 못하는 딱한 처지를 목격하기도 했다. 이러한 인권유린이 번져가자 크게 사회문제화되어 엄청난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인상에 남는 바는 그곳 남성들이 <태왁>도 갖추지 않은 채 신주머니처럼 나무조각에 형질을 썬 것을 물에 띄워 <태왁>대신 쓰면서 채취물은 그냥 손에 들고 나오는 모습이었다.

화물선을 타고 莞島를 거쳐 돌아올 때에는 물질을 치르면서 무려 28일이나 걸렸다.

스물일곱(1941)에는 忠淸南道로 나갔다. 船主는 일본인이었고 인솔자는 제주 남자였다. 終達의 한 해녀는 어린애를 데리고 갔었다. 일행이 어느 날 물질하고 돌아와 보니, 혼자 놀도록 두고 온 애가 종적없이 사라져서 동네가 왈칵 뒤집혔다. 해녀들 모두가 마을과 바닷가를 살살이 뒤졌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다. 이제 해아려도 가슴이 서늘한 일이다.

바람이 거세게 불거나 <웨살>로 물속이 흐릴 때에는 물질을 쉬었다. 쉬는 날엔 들뜬에 가서 딸감을 마련해 오거나 주민들의 모심기를 돕곤 했다.

바깥물질 때 받은 實收益이 얼마나 착취당했는지는 밝히기 어렵지만, 꽤 뜯겼으리라 여겨진다. 얼마나 뜯기는지 모르는 경우도 흔하였고, 설령 안다 하더라도 그저 그러는 것이려니 해서 눈감아 버린다는 게 조노파의 말이다. 따져들다가는 미움만 받을 뿐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해녀들도 人權伸張을 위해서는 학력이 탄탄해야 한다고 조노파는 강조한다. 학력이 갖추어져야 해녀들의 기본적 권익을 지킬 수 있다는 논리다.

충청남도에서는 주로 우뭇가사리를 캐었는데, 이를 팔 때 저울눈을 제멋대로 속이는, 이른바 不正檢斤이 저질러지는 줄 눈치채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入漁料네, 무슨 手數料네, 배삯이네, 이런저런 명목으로 공제하다가 보면 손에



줘어지는 돈은 總收益의 3분의 1쯤이었다고 토로한다.

우뚝가사리의 회계는 <1반초>·<2반초>가 마무리될 때마다 치러지는 게 관례였지만, 물질나간 해녀들 대부분은 자원해서 귀향할 때 한꺼번에 지급받았다. 목돈을 쥐고 싶은 생각에서였다.

함께 나간 해녀동아리는 가다가 집단오락회도 열었다. 소득이 괜찮을 때엔 自祝한다고 음식을 푸짐하게 마련하고 노래를 즐기는 그런 오락이었다.

물질나가는 해녀들은 생활비를 아끼느라 식량을 챙기고 간다. 조노파 일행이 나갈 때에도 해녀마다 보리쌀을 小斗 15말~20말씩 가지고 나갔다. 쌀이나 된장이 모자랄 경우면 채취한 해산블로써 그곳 주민들과 물물교환으로 보충하곤 했다.

조노파는 물질에 대한 職業觀이 탄탄하고 유달리 자랑스럽게 여긴다. 흔히 딸들에게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고들 하지만, 조노파의 견해는 다르다.

그래서 차라리 요새 태어나지 못했음을 안타깝게 여긴다. <물웃>을 입고 오를 오를 떨면서 긴 시간 자맥질해서 물질을 치를 수 없었던 지난 날에 비하여 요새는 얼마나 편한가고, 물질의 改變에 부러움을 못 감춘다.

조노파는 여기찬 해녀생활의 한평생 삶의 모습도 주목되거나와 확고한 職業觀 또한 범상치 않다.

## 2. 김효형의 出稼

天津里 西天津洞 김효형 노파(1907~)는 무려 18년 동안 동북아시아 세 나라를 누비어 다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 파아렌(大連)에도 나갔었고, 對馬島도 다녀왔다. 한반도에 드나든 곳은 너무 숭해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얼른 기억에 떠오르는 지역만 하더라도 慶尙北道 울산·당포·서성·강구·구룡포와 全羅南道의 옥지도·소리도·우왕리·보길도 등지 및 忠淸南道 黃海道 일대에 뻗었다.

한평생 삶의 보람을 김노파는 그 숭한 바다를 살살이 누벼다녔다는 데서 찾는다. 서울에 이블들이 살아서 비행기를 여섯번이나 타 보았다는 말도 자랑삼아 덧

붙인다. 바깥물질은 그 쓰라림도 지극하지마는, 보람도 크다. 김노파는 그 슬한 바닷속모습을 살살이 구경할 수 있었다는 데 큰 가치를 둔다. 사람의 얼굴 모습이 제각기 다르듯이 바닷속 바위들의 생김생김이나 헤엄쳐 다니는 고기들, 온갖 해조류의 모습이 신비스러운 만큼 다른 광경을 보는 즐거움을 김노파는 거듭 강조한다.

서른다섯(1941)에 따아렌(大連) 물질도 치렀다. 黃海道로 나갔다가 <난바르> 물질로 따아렌을 드나들었다.

돛배를 타고 黃海道로 나갈 때에는 밤이면 알맞은 포구에 寄港하곤 했다. 인솔자는 제주 사람이었지만, 船主는 黃海道 사람이었다. 黃海道 어느 곳을 갔는지는 기억에 없다.

황해도에서 물질하다가 음력 5월쯤 따아렌(大連)으로 <난바르> 물질도 드나들곤 했다. 날마다 따아렌으로 물질나갔다가 저녁때면 돌아오곤 했는데, 배 위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지냈다.

따아렌 앞바다에서는 일정한 곳에서 물질했던 게 아니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무자맥질했다. 자그만 섬들과 여들을 마구 돌았다. 전복만을 캐었으나 그 험철한 우뭇가사리와 미역을 슬하게 보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게 씩 아쉬웠다.

따아렌 앞바다의 전복은 자잘했고, 물속은 흐리고 어둡해서 어렵짐작으로 캐곤 했다. 소득은 별로 시원칠 않았다.

그곳에는 해녀들이 안 보였고, 남정들이 팬티만 입은 채 물질하는 모습이 어설프게 눈에 띄곤 했다. 20~30대의 남정들이 서넛씩 동아리를 이루며 물질하다가 제주 해녀들이 불을 쬐는 곳에 다가와서 자연스럽게 몸을 덥히곤 했다. 부인들이 그곳에 나타나서 남정들이 캔 해산물을 져 나르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따아렌의 앞바다에는 안개가 자욱히 끼는 날이 흔했던 것도 인상에 남는다. 음력 7월이 되자 따아렌 물질은 마감되었다. 따라서 따아렌 물질을 마치고 나서 黃海道와 忠淸道 바다를 이리저리 돌면서 <난바르>물질을 잇따라 치렀다. 이리하여 한번 물질나간 동안에도 떠돌아다니는 바다의 행동반경은 실로 널찍했다. 셋째 아들이 어렸을 때 그 애를 데리고 나가서 그 널찍한 바다를 돌아다니는 셈이다.

그때만이 아니라, 김노파는 바깥물질 나설 때마다 거의 애를 데리고 나섰다.

데리고 간 애 때문에 크게 애탄 적이 없었다는 점만해도 다행스런 일이다.

날 돛배를 타고 바깥물질을 나섰다. 바람이 자거나 거슬러 불 때에는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어기차게 〈해녀노래〉를 부르곤 했다.

그 당시에는 한번 물질나가서 6개월쯤 살아서 귀향할 때 1백냥쯤 벌어들이면 괜찮은 수입으로 족다. 귀향할 때에는 알뜰한 옷을 사고 가족들에게 선사하곤 하는 게 관례였고 즐거움이었다.

18년 동안이나 물질을 치르면서 발뚧이나 사들였는가는 물음에는 쓴웃음만 머금는다. 집안살림을 꾸려 나가는 한편, 선아홉에 여원 남편이 시름시름 앓아서 병시중하느라 재산을 불릴 여유는 없었다.

바깥물질을 나갈 때마다 개개인에게 돌아오는 수입은 착취의 3분의 1쯤이었다고 김노파는 단언한다. 人漁料네, 手數料네, 交際費네, 이런저런 명목으로 공제하다가 보면 수입의 3분의 2는 착취되기 일쑤라는 것이다. 고령이면서도 사리를 판별하는 눈이 정확하고 냉철하다.

김노파는 바깥물질을 다녀오는 해녀들도 능력에 따라 그 수익은 천차만별임을 강조한다. “내려갈 땐 흥빛, 올라올 땐 천청만청구만청”이란 俗談의 뜻이 그대로 들어맞는다고 강조한다. 바닷속으로 무자백질해서 내려갈 때엔 한빛, 곧 同格이지만, 해산물을 바닷속에서 캐고 수면으로 올라올 때엔 그 능력과 재수에 따라서 千層萬層九萬層으로 해녀 개개인의 소득의 차등이 크다는 것이다.

바깥물질 나간다고 모두 돈을 벌어들일 수는 없다는 점을 김노파는 강조한다. 짓곳은 인술자를 만나서 착취가 심하거나, 날씨나 바다 사정이 시원칠 못해서 물질이 순조롭질 못하거나, 건강이 기울어져서 제대로 물질을 치르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빚을 지고 돌아온다는 것이다. 바깥물질 나간 곳에서 씹뽀이가 해플 때에도 마찬가지다. 미리 前渡金을 받아 쓰고도 그 前渡金을 갚을 만큼 벌어들이지 못할 때 볼모로 잡혀 귀향할 수 없는 예도 흔하다.

국내외의 술한 바다를 폭넓게 누비어 다녔음을 평생의 보람으로 여기는 김노파의 생각은 펍 미덥고 싱그럽다.

### 3. 김춘산의 出稼

해녀들에 대하여 조사를 벌이다가 보면 오랜 세월 바깥물질을 치른다든가 하면

서 갖은 역경을 겪고도 한치의 구김살도 없이 싱그럽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天津里 東天津洞의 김춘산 여인(56)도 그런 분이다.

동해안과 남해안 일대를 김춘산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살살이 누비어 다녔다.

열일곱에 부산 동삼동에 <초용>, 곧 첫바깥물질을 나가기 비롯해서 잇따라 閑山 島 가까이 가옥도(18세) 및 매물도(19세), 江原道와 蔚山(20세)을 다녀 왔다.

결혼하는 스물한살에도 統營을 드나들었다. 스물둘에는 全羅南道 青山, 스물셋 되는 연초에는 부산 남천동에 나가서 석달동안 물질하다가 봄철이 되자 慶尙 北道 九龍浦·木浦 일대로 올라가면서 물질했다.

이 九龍浦·木浦 일대에는 그후 세해 동안 연겨푸 나갔고, 솔머리·구만·대천·삼정·강구미 등을 누벼다녔는데 들른 곳을 일일이 기억하기마저 힘들다.

九龍浦 솔머리에는 스물여섯에도 나갔고, 그 이듬해엔 全南 小莞島 주변을 돌았다.

열아홉에 매물도로 나갈 때에는 九死一生의 위태로움도 겪었다. 돛배를 타고 나가다가 거센 풍파를 만났기 때문이다. 지붕같이 몰려드는 파도 속에 휘말리어 배가 침몰할 듯 위태로운 고비에 휩싸이면서 오랜 시간 맴돌았다. 고향에서는 일행이 아주 沒死했다는 소식이 번질 정도였다.

釜山 앞바다의 물질은 또 하나의 위태로움이 따랐다. 그곳에서 침몰했던 배가 오랫동안 깊숙한 바다속에 가라앉아 있었으므로 그 船體 안 으스스한 곳에 홍합이 자라났다. 그 船體 속으로 헤엄쳐 들어갔다가는 빠져나올 길이 막연해서 해녀들이 위험에 맞닥뜨리기도 했다. 애꿎어도 일행 가운데 한 해녀는 그러다가 목숨을 잃은 일도 있다. 이제 헤아려도 등골이 오싹한 일이다.

김춘산 여인은 이른바 <초용>이라고, 釜山의 동삼동에 첫물질을 다녀오면서 2천원을 벌었다. 그 돈이 밑받침이 되어 보람되게도 5천원짜리 밭 한 뼉기를 사들였으니, 이제 생각해도 가슴 뿌듯한 일이었다. 열일곱의 나이에 억척스레 재 힘으로 家産을 불렀으니 얼마나 대견한 일인가.

김춘산 여인은 바깥물질 다닐 때의 단출한 식사를 강조한다. 어디어디를 다녀왔는지 빠짐없이 들추어내기도 어려울 만큼 번질나게 육지물질을 드나들었지만, 일살밥을 먹어 본 적은 전혀 없다. 한결같이 고향에서 가지고 간 좁쌀로써 참고

견디었다.

자그맣고 외로운 섬에 갇혀질 경우엔 어디에서 찬거리를 마련해 올 것인가. 좁쌀밥에 된장이 고작이었고 김치 깎두기를 마련할 길마저 없었다.

계다가 된장마저 떨어질 경우엔 손수 캔 홍합과 멧게를 조금 들고 마을에서 된장과 바꾸곤 했다. 된장마저도 그림기만 한 각박한 육지물질을 말할 때에도 김여인은 밝은 표정이다.

배 위에서 며칠씩 먹고 자면서 이른바 〈난바르〉 물질도 치러 왔다. 며칠 동안 배 위에서 살며시 〈난바르〉 물질을 치를 때엔 무엇보다도 食水마저 모라자서 크게 고통스러웠다.

그런데도 바깥물질이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니었다. 굼뜬뜬하게 돈을 모으는 보람도 컸고, 고향을 떠나서 홀가분하게 친구들과 어우러져 까발리며 떠드는 것도 재미있다. 이런저런 바닷속을 구경하는 재미 또한 괜찮았다.

별이가 괜찮을 때엔 錢主가 호의를 베풀어서 觀光길에 나서기도 했고, 폐지를 일부러 잡아서 잔치를 벌인 적도 있다. 그 지역으로 나간 해녀들이 몇 동아리 대항으로 노래자랑을 베풀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으레 뽀뽀 나가곤 했다.

김여인은 이런저런 노래를 썩 잘 부른다. 〈해녀노래〉를 비롯한 일하면서 부르는 민요도 잘 부르고 흘러간 옛노래도 잘 부른다. 두어시간 불러도 쉬지도 않은 채 다양한 노래가 이어지는데, 1932년의 해녀들의 抗日鬪爭을 전후하여 널리 번졌던 이른바 〈해녀가〉도, 잘 부른다.

한반도 곳곳으로 물질나갔을 때 벌어들이는 수입을 물어 봤더니, 이내 채취액의 35%쯤이라고 답변한다. 實收入이 35%라는 계산은 우선 錢主와 반씩 나눠 가지면 50%인데, 그 가운데에서 사공몹으로 3할을 빼고나면 35%다.

다시 말하면 入漁料<sup>1</sup>네 무슨무슨 수수료네 하면서 우선 錢主에게 50%가 돌아간다. 나머지 50% 가운데 뱃불질할 때 사공에게 15%를 빼고 나면 해녀 개개인의 實收入은 35%가 된다는 계산이다.

갖은 不正과 착취에도 흔히 맞닥뜨렸으며, 이른바 不正檢斤에도 직면했다. 不正檢斤이란 어울리지 않는 커다란 저울로 우뚝가사리를 저울질하면서 저울눈을 속이는 일이다. 不正檢斤을 저지르는 줄 알면서도 사실을 밝혀 항의할 수도 없었

다. 따져들다가는 되레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저그런가 하면서 참아 나가는 게 물질의 어려움만큼이나 지난했다.

김춘산여인의 친정어머니는 九龍浦에 물질나갔다가 病死했는데, 그녀가 아홉살 되던 해였다. 그녀는 九龍浦에서 3년간 머물면서 물질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의 屍身을 고향으로 移葬했다.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38년만의 일이었다.

### 제 3 절 文德進 일행의 靑島 進出

제주 해녀의 중국 칭따오(靑島) 진출을 우도면에서 주도했다는 사실도 특기할 만하다.

일제말기 제주 해녀의 칭따오 진출은 우도면 출신 文德進씨의 기발한 입어권 획득에 따라 이루어졌고, 文德進씨와 함께 칭따오에 건너가서 文씨를 도왔던 姜洵燦씨(구좌읍 우도출장소장 역임)도 우도면 출신이다.

칭따오 앞바다의 입어권을 획득한 다음에, 文씨는 제주도내 곳곳에서 前渡金을 내주고 上軍해녀 80여명을 모집해 갔는데, 물론 우도면 해녀가 주장이었다. 이처럼 칭따오 어장의 입어권을 획득한 이가 바로 우도면 사람이고, 우도면 해녀가 많이 나갔다는 점에서 제주 해녀의 칭따오 진출은 우도면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文德進씨는 기발한 착상과 철통같은 의지를 갖추었을 뿐더러, 사교에 능란했다고 姜洵燦씨는 강조한다.

일제때에 元山에서 사업에 실패하자, 釜山에서 여관을 차렸지만 기틀이 잡히는가 하면 무렵 애꿎이 화재가 덮쳤다. 對馬島에서 해산물 가공업을 치르다가 다시 화재를 만난다.

잇따른 火魔의 呑運에 눈앞이 캄캄했지마는 그는 결코 까무러치지 않았다. 오뚝이처럼 우뚝 일어서서 기발한 사업을 찾아 중국 칭따오로 건너갔다.

칭따오 바다에도 우뚝가사리가 휘척휘척 자라지마는, 그곳에는 해녀가 없으므로 남성잠수부들에 따라 일부 채취될 뿐 거의 버려지는 실태에 큰 관심이 갔다.

더욱이나 칭따오 바다에 미역은 안 보였다. 불현듯 文씨는 기발한 발상을 했다. 제주에서 우뚝가사리가 자라는 돌들을 칭따오로 옮겨서 미역이 잘 자라게 되면, 입어권을 얻고 제주 해녀를 모집해 와서 이를 캐자고 작심했다.

1933년에 귀국한 그는 이를 실행하기로 했다. 제주에서 미역 포자가 붙은 돌과 전복 등을 싣고 칭따오로 가서 바다에 던졌다.

두해 뒤에 보니, 전복 양식은 실패했으나 미역은 한칠하게 자랐다. 그곳을 점령했던 일본 관청에 그 경위를 알리고 드디어 이의 채취를 위한 입어권을 획득하기에 이른다.

제주로 다시 귀향한 그는 칭따오로 물질나갈 상군해녀들을 전도에 걸쳐 모집했다. 牛島面을 비롯, 舊左邑 終達, 城山邑 古城, 翰京面 龍水, 安德面 沙溪, 表善面 表善 등지에서 80명쯤 모집,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前渡金을 내주면서 집단으로 칭따오로 인솔해 갔다. 칭따오의 중국인들과 일본 관리들도 우호적이었고, 미역 채취는 순조로웠다.

제주 해녀들은 5월에 칭따오로 나가서 8월 추석전에 귀향하곤 했는데, 평균 3백원씩 수입을 올렸다. 당시 소학교 교사 봉급이 40원이었으므로 서너달에 3백원 수입이라면 꽤 좋은 벌이었다.

그 당시, 文씨가 미역 포자를 제주에서 싣고 가서 칭따오의 바다에 깔았음은 입어권을 획득하기 위한 구실이었을까. 姜洙燦(1992년 사망)씨의 증언에 따르면 한갓 구실이 아니라, 실제로 미역의 移植에 성공했었다 한다.

일행이 제주에서 칭따오를 드나드는 데에는 18톤쯤의 발동선을 이용했다. 출항하기 직전에는 돼지 등 채수를 마련해서 고사를 치르곤 했다.

발동선으로 55시간쯤 달리면 칭따오에 닿았는데, 오가는 사이에 풍파로 시달려 위태로운 고비는 없었다.

칭따오 출신의 해녀들은 없었다. 가다가 남정들이 水鏡도 안 낀 채 팬니만 입고 자맥질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 그 기량은 제주 해녀들에 비하여 펴 어설프었다.

칭따오 일대에 나간 제주 상군해녀들은 미역을 엄청나게 캐내었다. 그러자 山東省 일대에서는 해외 미역 수입을 중단하기에 이른다.

물길나간 해녀들은 편안히 지내었고, 그곳 중국인들과 알력을 빚는 일도 없었다. 文씨의 외교수단이 뛰어난 까닭이었다고 강노찬씨는 강조한다.

해녀들의 宿食도 文씨가 알뜰하게 뒷바라지해 주었을 뿐더러, 각자가 귀향할 때 3백원쯤의 목돈을 쥐고 올 수 있었음은 큰 보람이었다.

3백원의 화폐가치가 칭따오에서는 대수롭지 않았지마는, 귀국하면 큰돈이었다. 물론 해녀들은 우뭇가사리도 캐었다. 캐어낸 우뭇가사리는 팔리지 않은 <물우미>로 寒天工場에 팔았다.

해녀들의 권익은 한결같이 잘 보장되었다. 채취액의 50% 이상은 한결같이 보장되었으므로 다른 곳 出稼보다는 유리했던 셈이다.

칭따오 일대는 일본이 점령한 때였으므로, 그곳 漁業權을 둘러싸고 일본인들도 몹시 탐내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文씨는 요령있게 기반을 탄탄히 다졌으므로 중국측에서도 그 앞바다의 漁業權은 당연히 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인정했다.

칭따오에서 文씨는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였다. 돈을 가마니에 쌓을 정도였다고 재보자들은 표현한다. 그러나 광복을 맞으면서 입어를 중단하게 되었으며, 그 꽤 많은 돈벌이도 고작 두해 동안에 그친다.

文씨는 칭따오에서 우뭇가사리와 미역을 채취할 때 30여명의 종업원을 거느렸다. 사무직원 6명, 현장종사원 4명, 선원 20명 등이었다. 이들도 모두 광복과 더불어 함께 철수했다.

귀국하고서도 文씨는 웅골차게 이련저런 사업을 치렀던 것으로 알려진다. 신서란을 키워 로프공장을 경영하기도 했고, 대나무발을 가꾸기도 했다. 하와이 동포한테서 파인애플을 기증받아서 서귀포에서 이의 재배에 선봉선 일도 있다.

어쨌든 제주 해녀의 칭따오 진출은 유다른 뜻을 지닌다. 企劃的, 意圖的 進出이었다는 점에서 여느 海外出稼와는 색다르다.

文씨가 신선한 발상에 따라 일부러 개척한 여장에 그의 인솔로 일제히 나가곤 했으니 만약 그의 進取的 發想이나 果敢한 實行이 없었다면 제주 해녀의 칭따오 진출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한 사람의 기발한 생각이나 意志는 이처럼 큰 자취를 남긴다. 또한 우리가 주목할 바는 그의 비범한 圖志다. 연거푸 사업에 실패했지만, 까무러치지 않고 우



뚝뚝 일어서며 새 경자를 꿰뚫어 나가는 슬기와 根氣가 예사롭지 않다.

일본이 점령한 중국 앞바다의 入漁權을 획득하겠다는 그 발상도 놀랍거니와, 태평양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그 어정쩡한 교비에 이런 進取的 構想이 實行되었다는 점에서 사람의 願力 實現의 典範을 본다.

제주 여인들의 발은 동북아시아 일대로 뻗었지만, 이처럼 여장을 일부러 개척하고 入漁權을 당당히 확보해서 出稼한 사례는 칭따오 외에 아직 드러나지 않는다.

말하자면, 세계적 존재인 제주 해녀의 행동반경은 제주바다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반도 각 연안과 크고 작은 섬은 물론이요, 일본의 여러 연안과 중국 및 러시아의 바다에까지 뿔뿔이 펼쳐진다.

중국의 경우에는 칭따오와 따아렌(大連)이다. 따아렌에도 그저 그곳으로 나가서 물질을 따름이다.

미역 포자를 바다에 깔고 당당히 入漁權을 획득, 집단인술에 따른 出稼였다는 점에서 우도면에서 주도했던 칭따오 진출이 지니는 의미는 높기 기릴 만하다.

## 제 4 절 龍宮을 다녀온 만행이 할머니

해녀의 물질은 바닷속을 드나드는 이색적인 직업이다. 바닷속 깊이 드나들면서 해산물을 캔다는 점에서 늘 위험이 따른다. 〈해녀노래〉 사설에 드러나듯 그야말로 “七星板을 등에 지고” “저승길을 오락가락” 하는 일이다. 실제 물질을 하다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경우도 가끔 드러난다.

따라서 물질에 따른 怪奇談도 갖가지로 전승된다. 〈珊瑚海女〉 얘기나 〈용궁올레〉 얘기도 그런 口碑傳承인데, 그 내용이 어디까지 事實이고 어디까지 虛構인지 판별하기는 어렵다. 비상한 事實에 근거해서 이모저모로 전승되는 사이에 상당부분 윤색된 채 흥미로운 설화로 정착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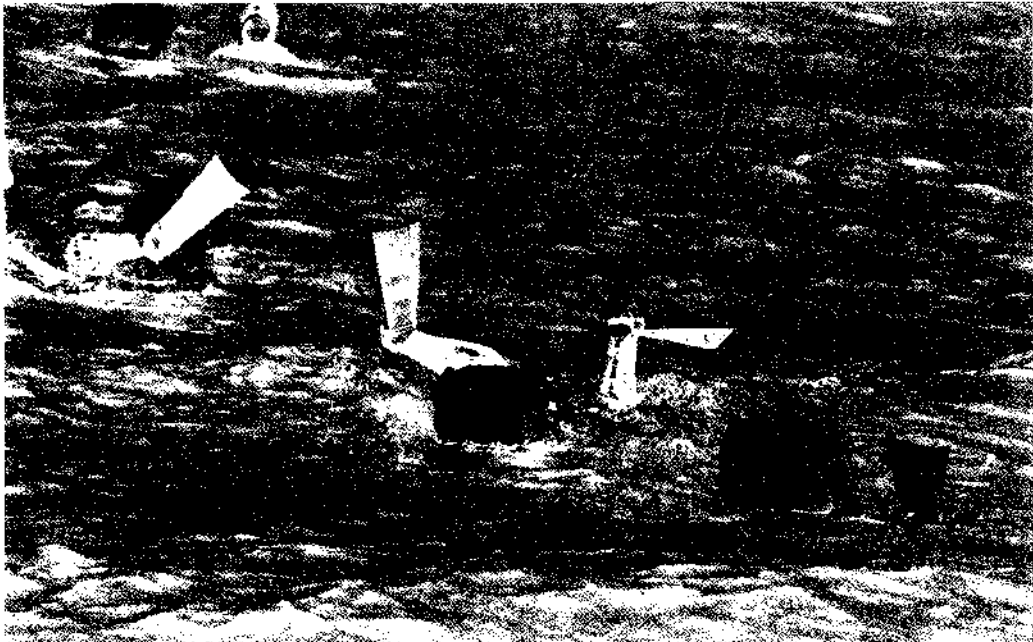
그런데, 1940년쯤에 우도면에서 실제 일어났던 괴상한 이야기가 널리 口傳된다. 西光里 下牛目洞에서 발생했던 기적과 같은 이야기다.

만행이 할머니가 물질하다가 수면으로 솟아오르지 않자, 죽은 줄 알았는데 두

어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머리털이 깎인 채 살아났다는 신기한 얘기도.

만행이 할버니가 무자택질했다가 두어 시간만에야 물위로 솟아올랐다는 얘기는 불과 50여년전의 일이므로 심게 목격했던 이들이 살아 있다. 목격했던 이들이 있으므로 부인하지는 못하면서도 이제도 풀 길 없는 수수께끼로 이 얘기가 되풀이 될 때마다 모두 고개를 가우똥거린다.

미역을 캐기 시작하는 解警(許採)을 며칠 전에 치른 下牛日洞 바닷가는 온통 미역캐는 해녀들의 인파로 뒤덮였다. 해마다 年中行事처럼 펼쳐지는 미역 解警철의 바닷가는 며칠 동안 미역을 캐는 해녀들과 켜 미역을 져 나르는 사람들로 온통 술렁인다. 마치 交響樂이 바닷가에 울려퍼지는 情景이다.



해녀가 자택질하는 광경

그날도 활짝 켜 날씨가 명주바다에 쓸물이어서 물질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해녀들은 완각 바다로 몰렸다. 한 물거리 물질을 치른 해녀들은 <불턱>에 눌러앉아 불을 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만행이 할버니도 함께 끼어들어 우스갯소리를 볼썽볼썽 던지곤 했다.

그리다가 해녀동아리는 일제히 다시 무자백질하러 바다로 달린다. 호오이호오이 해녀들의 숨비질소리는 바닷가에 베아리쳤다.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 <메역망시리>에 머역을 그득 채운 해녀들은 줄줄이 바닷가로 풀려나온다. 걸어나오면서도 해녀들은 여느때처럼 왁자지껄 얘기꽃이 달밭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다들 바닷가로 나왔지만, 만행이 할머니만은 눈에 띄질 않는다. 모두 가쁜 숨을 돌려쉬고 있을 무렵, 누군가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이브, 큰일 났수다. 만행이 할망 안 보였싱게”

해녀동아리는 일제히 놀라 일어섰다. 다들 바다를 뚫어져라 살펴봤다. <태약>만 등실 떠 있을 뿐, 만행이 할머니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초조한 시간은 흘러갔고, 일행은 안달복달하면서 슬렁대기 시작한다. 한참 시간이 흘러도 할머니는 나타나질 않는다. 이빨싸 숨진 게 틀림없구나, 해녀들 모두는 失意에 빠진 채 펑펑한 긴장만이 감돌았다.

뚝뚝의 사고소식은 삼시간에 마을에도 파다하게 먼저 갔다. 마을 사람들도 우르르 바닷가로 몰려들었다.

해녀 넷은 앞나투어 바닷속으로 부자백질해 들어갔다. <태약>만 덩그렇게 떠 있는 물속을 살살이 뒤져 봤으나 할머니는 눈에 띄지 않는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일까. 느닷없이 부딪힌 사건이라 모두는 얼굴을 마주하면서 어안이 병병할 뿐, 어두운 짐울만이 바닷가에 내리깔렸다.

방연실색한 채 두어시간쯤 흘렀을까. 다들 만행이 할머니는 숨진 줄 알고 체념하고 있을 때, 이진 부순 번고일까. 할머니가 물 위로 불쑥 귀신과도 같이 머리를 내미는 게 아닌가. 모두의 눈은 휘둥그렇게 마주칠 뿐이었다.

만행이 할머니입은 어둡었으나, 이진 어찌 일로 너리가 뻑뻑 끼여지지 않았는가. 한참 정신을 가다듬더니 할머니는 천천히 그 정위를 털어 놓는다.

부자백질해서 전복을 캔다고 열한길 물속쯤 들어가는 것으로 어렵되었다. 큼직한 전복이 눈에 띄었다. 우동통 실찢 전복이었다. <빗칭>을 찢러 캐어내려는데 워낙 큰 전복이라 때기가 만만찮았다.

순간 정신이 이절했다. 온 골이 짙르르 적을하는 순간, 눈앞에는 느닷없이 넷

종지(뿔종제기)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뿔종지는 자기를 따라오도록 할머니에게 시능한다. 앞장서서 나가는 뿔종지를 따라가야만 될 듯 느껴져서 그냥 그대로 쫓아갔다.

눈앞에는 험칠한 소나무가 드러나고 으리으리한 대문이 나타난다. 웅장한 기와집이 전개되는데, 눈을 부라리며 살펴보니 훌륭한 절이었다. 저절로 합장하게 되고 경건히 배례했다. 어찌하여 내가 이처럼 엄숙한 절 안으로 들어서게 되었을까. 그 장엄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도는 듯 긴장감까지 일었다.

남 못지 않은 불심으로 이 절 저 절 찾아다니며 불공도 열심히 치르는 할머니였지만, 이런 엄숙한 분위기는 처음이었다.

염주를 구르는 스님이 의연히 노파를 맞는다. 이곳에 오면 누구든 머리를 깎아야 된다면 스님은 박박 노파의 머리를 사정없이 깎았다.

다 깎고나서 스님은

“당신은 이곳에 오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어서 사바세계로 되돌아가서 좀 차내다가 다시 오실 것으로 하시오. 썰붙인 지갑 서들리서 돌아가시오.”

따스한 스님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스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저도 모르는 새에 물 위로 솟아오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불턱>에 둘러앉아 그 신비스런 경위를 듣는 해녀들과 동네사람들은 신들린 듯 숨을 죽였다.

분명히 노파의 머리는 깎이었고, 목에도 칼긂이 나 있었다. 삭발하던 칼이 빛나가서 생긴 상처인 듯 보였다.

이런 신기한 일도 세상에 다 있단 말인가.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웃마을로 삼시간에 번져 나갔다.

침 요행히 되살아나기는 했지만, 만행이 할머니는 그 기적같은 일이 있는 이후 시름시름 앓는 날이 많았다. 일년반쯤 살다가 이승을 하직했다.

만행이 할머니의 이 기적같은 경험은 동네사람들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그 영문은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겨져서 아무도 밝히지 못한다.

## 제 5 절 憂國青年 康寬順이 作詞한 海女歌

해녀들의 찌들고도 억센 삶과 抗日意志가 두철하게 담긴 이른바 〈해녀가〉는 이제도 고령의 해녀들이 진지하게 부른다. 〈해녀가〉를 부를 때의 표정은 늘 싱그럽고 어기차다. 그 가사내용과 부딪치는 실정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 가사는 1932년 요원의 불길처럼 떠올랐던 제주 해녀 抗日鬪爭을 은밀히 뒷받침했던 우도면 출신 康寬順씨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다.

우국청년 康寬順씨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던 항일투사의 한 사람이다.

이 노래는 특히 牛島面과 舊左邑, 城山邑 일대의 60대 이상의 해녀들 사이에서 부르는 이들이 아직도 많다. 그만큼 傳承傳播力이 뿌리 깊다.

어찌하여 이 노래는 牛島面·舊左邑과 城山邑 일대에서 끈덕지게 전승되는 것일까. 그 유명했던 1932년의 항일투쟁과 밀착되기 때문이다.

〈해녀가〉 역시 넓은 뜻으로 보면 민요로서 新民謠라 볼 수 있다. 본격적인 민요라 볼 수는 없지만, 넓은 의미에서 민요에 포함된다.

물론 엄밀히 따지자면 민요는 본디 지은이도 있을 수 없고, 지은 연대도 박연하다. 〈해녀가〉는 牛島面 출신 康寬順씨가 지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그 가락은 東京行進曲을 차용했다는 점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의 민요와는 다르다.

예를 들어 노 저으면서 부르는 〈해녀노래〉의 가락이나 술한 사실을 누가 지었다고 단언할 수 있겠는가. 지은이나 지은 연대를 따진다는 것은 본격적인 민요일 경우 사리에 벗어난다.

모든 일노래가 그렇고, 〈행상노래〉 등 의식요가 그렇고, 〈강강술래〉 등 유희무용요나 〈오돌또기〉 따위, 창민요 역시 그 작자나 제작연대는 알 수 없다.

〈해녀가〉를 민요로 보는 견해는 〈목포의 눈물〉 같은 흘러간 옛노래를 민요로 보는 경우처럼 넓은 뜻에서다.

어쨌든 〈해녀가〉의 기능은 폭넓다. 해녀들의 실정을 그 절절한 가사에 투사하면서 자아정체감을 확인하는 한편, 싱그럽게 합창하면서 抗日意識을 한껏 드높였다.

우리들은 제주도의 가이없는 해녀들  
비참한 살림살이 세상이 안다  
추운 날 더운 날 비가 오는 날에도  
저 바다 저 물결에 시달리는 몸  
이침 일찍 집을 떠나 환혼 되던 돌아와  
우는 아기 젖 먹이며 저녁밥 짓는다  
하루종일 해봤으나 벼은 것은 기막혀  
살자하니 한숨으로 잠 못 이룬다  
이른봄 고향산천 부모형제 이별코  
온가족 생명줄을 등에다 지고  
파도 세고 무서운 저 바다를 건너서  
조선각처 대마도로 둔벌이 간다  
배운없는 우리 해녀 가는 곳마다  
저놈들은 착취기간 설치해 놓고  
우리들의 피와 땀을 착취해 간다  
가이없는 우리 해녀 어데로 갈까

이 〈해녀가〉가 1932년 제주 해녀 항일투쟁이 폭발했던, 훗날 떠오르는 抗日의 불길이 아무리 거센 무렵에 애창되었다 하더라도, 것처럼 널리 번지고 오늘날까지 끈질기게 전승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 중요한 이유로 가사내용이 제주 해녀의 절실한 실정과 심경을 어렵히 드러낸다는 점을 우선 들 수 있다.

제1절의 “추운 날 더운 날 비가 오는 날에도/저 바다 저 물결에 시달리는 몸”이란 표현은 자신들의 실정을 잘 대변해 준다고 믿으면서 이내 공명한다. 놀라운 일이지만 추운 겨울에도 해녀의 물질은 이어진다. 좁은 넓은 물질은 사시사철 치러지며, 비가 오더라도 아랑곳없이 바다밭을 누비는 삶의 실정이 잘 그려졌다. 밭일을 치르면서도 사철 바닷속을 부자맥질해야 사는, 절박한 사정이 잘 드러난 가사를 소리 높여 부르면서 自我正體感을 확인하기도 한다.

제2절에서는 一人三役의 일상적 삶을 어렵히 보여 준다. 농사하라, 물질하라, 하늘 땅이 랫붙은 만큼 바쁘지만, 밥을 짓고 앵플 돌보는 범상한 주부의 직능 조

한 외면할 수 없다. 소득이 낮아 흡족할 수 없는 찌든 삶이지만 이를 감수하면서, 늘 어두워야 “우는 아기 젖 먹이며 저녁밥 짓는다.”

더욱이나 동북아시아 일대의 바다로 바깥물질을 나서야 하는, 예사롭지 않은 실정이 제3절에는 그려진다. “온 가족 생명줄을 등에다 지고.” 험하고 먼 바다로 달린다. 실로 제주 해녀의 바다밭은 동북아시아 일대 한반도·일본·중국·러시아로 탁 트였던 것이다.

해녀들의 權益과 收益은 무참히 짓밟혔다. 특히 일본인들의 횡포와 착취가 심했으니, 제주 해녀 항일투쟁도 이리하여 촉발되었다. 해녀들의 항의는 직설적이어서 “저놈들이 착취기관 설치해 놓고/우리들의 피와 땀을 착취해 간다”고 노래한다.

해녀들의 찌든 실정과 抗日意志가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이른바 〈해녀가〉는 어떻게 습득되었을까. 어디에서 어떻게 배워서 이처럼 널리 번지고 끈끈하게 불리어지는가.

〈해녀가〉를 잘 부르는 해녀들에게 물으면서 추적해 보았더니, 야학에서 배웠다는 해녀들이 꽤 드러난다. 어디서 배웠다는 말을 발설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하면서 야학선생이 은밀히 가르쳐 주더라는 말을 흔히 한다.

당시 야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얼마나 민족의식에 투철했는가 함은 玄基榮씨의 역작 《바람 타는 섬》에서도 잘 그려졌거니와, 抗日意識은 〈해녀가〉의 제4절에 구체적으로 요약되었다. 그러니 은밀히 가르쳐졌을 법하다.

더구나 야학이 성행하던 무렵은 제주 해녀 항일투쟁이 일어났던 1932년 전후한 무렵이니, 〈해녀가〉의 은밀한 학습은 이해될 법하다. 또한 당시의 애국청년세력이 해녀들의 항일투쟁을 극력 뒷받침했으리라 추측하기에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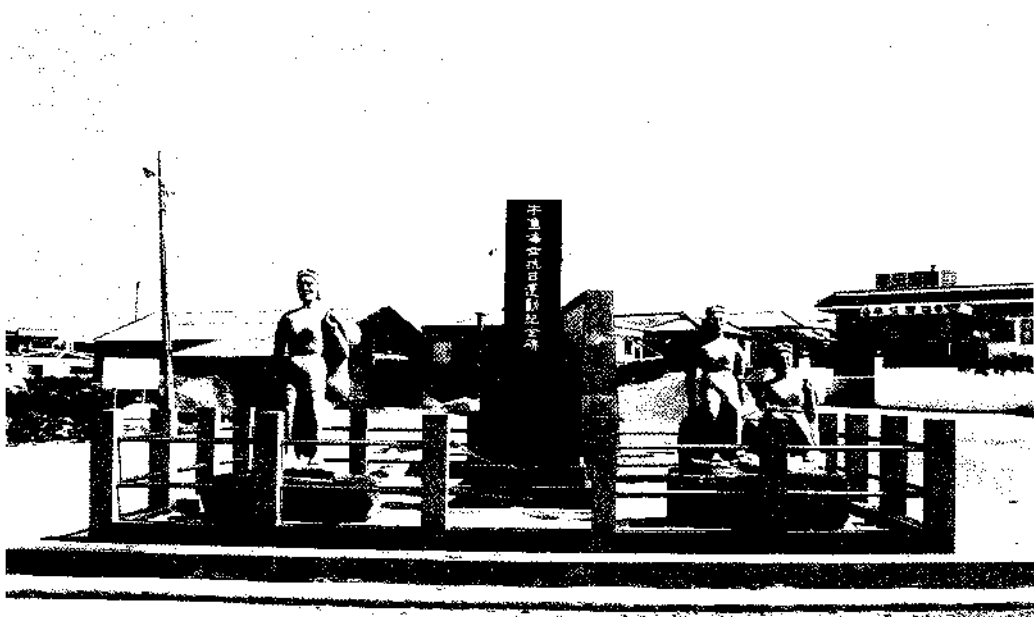
抗日意識에 투철하고 절박한 해녀들의 삶의 모습이 어련히 담겨졌다는 점에서 싱그러운 新民謠로서 아식도 고향의 해녀들 사이에서 〈해녀가〉가 꾸준히 애창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 제 6 절 海女集團의 抗日鬪爭

1932년 약 3개월에 걸쳐 요원의 불길처럼 제주의 천지를 진동했던 해녀의 항일

운동은 국내 최대의 여성집단의 항일투쟁이면서 국내 최대의 어민봉기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1932년 1월 극렬하게 불타올랐던 해녀들의 항일운동은 약 3개월 동안 연인원이 무려 1만7천여명에 달하는 대대적인 절규로써 한국독립운동사에서 그 뜻이 찬연하다.



우도 해녀 抗日鬪爭기념비

이 역사적 항일운동에 우도면의 해녀들은 대거 참여하여 극렬하게 투쟁했다. 그 자세한 실상을 여기에 다 밝힐 수는 없지만, 1932년 1월 12일 해녀어업조합장을 겸임한 田口禎憲島司가 細花로 들르는 시간에 맞춰 부근 해녀들이 총궐기했을 때 우도면 해녀들도 3백여명이 참여, 결사적인 투쟁을 벌였다.

또한, 1월 26일에는 우도면의 해녀 8백여명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피의자 검거차 우도면에 건너온 경관무리들과 극렬한 항쟁을 벌였다.

이 역사적인 제주 해녀 항일투쟁은 제주도의 어느 한 지역에 머무는 게 아니라, 舊左岫, 牛島面, 城山岫 일대 여러 마을에서 일어났고, 1932년 연초부터



무려 3개월 이상이나 끈질기게 펼쳐진, 대규모의 줄기찬 항거였다.

투쟁의 목표도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의 부당한 해녀 權益 侵害을 분쇄하려는 데 1차적인 뜻을 두었으나, 인간의 尊嚴性을 말살하려는 일제에 대한 근원적인 항거였다.

또한 이 항쟁은 1월 12일, 細花에서 폭발한 대규모의 시위만을 부각하기 쉽지만, 그날이 해녀어업조합에서 지정한 패류시정관매일이었고, 新任 田口島司가 마침 그곳에 들르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잇따라 細花로 몰려간 것도 순사 주재소가 細花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해녀항쟁은 제주 동부 여러 마을 해녀공동체의 줄기찬 투쟁이었으므로 '새화리 해녀사건'이라기보다는 '濟州海女 抗日鬪爭' '濟州海女 抗日運動' 등으로 호칭하는 게 어떨까.

1932년 연초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연인원 1만7천여명이 여기저기 抗日의 횃불을 지펴 올렸던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한마디로 해녀의 權益이 일제에 의하여 짓밟히는 데 따른 항거였다. 그들의 抗日鬪爭은 生存과 自尊意識에 기초를 둔다. 다시 말해서 사람답게 살아남기 위한 인간 본연의 항거였다.

그 收奪은 1920년 4월 16일에 창립된 濟州島海女組습을 통해서 더욱 적나라하게 자행되었다. 당초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은 제주 해녀들의 權益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였다.

해산물의 수요가 점차 넓혀져 가자, 제주 해녀의 행동반경도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걸쳐 동북아시아 일대로 넓혀져 갔다. 해녀들의 수입이 불어나면서 客主나 蘆岩主의 착취는 제주 해녀들이 이르는 곳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빈간에서도 해녀들의 권익을 위하여 조합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드디어 1920년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이 설립되기에 이른다.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이 결성될 당시 한동안은 해녀들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한 바도 적잖았다. 예를 들면 해산물의 공동판매를 실시함으로써 客主의 중간착취를 방지했던 일 따위다.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은 한국의 모든 어업조합 가운데 최대규모로 커 갔으며,

1924년을 기준한다면 조합원수는 5천9백32명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전국 최대의 어업조합으로 커 갔으나,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은 1925년을 고비로 해서 점차 御用化의 길로 풀달음쳤다. 곧, 불행하게도 濟州島司가 해녀어업조합 장직을 겸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녀들이 곡숨 바쳐 캐어들인 해산물이 이레저레 착취의 대상이 되는 점은 고쳐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고향을 떠나고 낯선 타향에 出稼, 신명을 바쳐 채취한 해산물 대금의 8할은 가다가 뜯기도 했다.

곧 제주 해녀들이 出稼地에서 캔 해산물은 만드시 조선해조회사를 거쳐서 판매되었기 때문에 수입의 5할은 그 해조회사에 수수료로서 뜯기었다.

또한 해녀어업조합에서 1.8할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했다. 그 밖에 組合費네, 선주의 賃金이네, 소개인 謝禮費네, 그럭저럭 뜯기다가 보면 해녀의 實收人은 이따금 매상고의 2할밖에 되지 않았음은 주목할 만하다.

제주 해녀의 동남아 진출은 놀라운 만한 島民大移動이었다. 그 가운데도 우도면 해녀의 진출이 압도적이었으니, 그 收奪의 피해 역시 측량할 길 없이 육중했으리라 본다.

1910년대로 치올리가더라도 우도면의 해녀 出稼는 우선 그 수효에서부터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石宙明의 《濟州島墮筆》(202면)에서도 이런 사실이 밝혀진다. 곧 “1915년경의 出稼海女の 數”라는 항목으로 “約 2천5백명인데 出稼地別로는 慶南에 1천7백명, 全南 多島海方面에 3백명, 其他에 5백명이고, 其出身地로는 牛島의 約 4백명을 필두로 終達里, 杏源里, 法還里, 爲美里 등의 約 1백명씩과 其他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바는 “牛島의 約 4백명을 필두로”란 대목이니, 1910년대에 한 지역에서 4백명의 해녀가 전국 각처로 出稼했음은 주목되며, 슬한 해녀가 상당히 착취되었으리라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다.

어쨌든 島司가 조합장을 겸임한 해녀어업조합은 날이 갈수록 그 비루도 부패해 갔다. 해녀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출범한 조합이었으나 거기선 生業戰士인 해녀들을 옹호하기는커녕, 되려 착취기관으로 전락해 갔다.

그리하여 嶺左區 下道북에서 1931년 여름부터 해산물 買收價格을 둘러싼 분

쟁이 일어났으며, 1932년 연초 3개월 동안 대대적인 抗日鬪爭으로 이어진다.

買收價格의 부당성은 이른바 ‘先口錢販賣制’였다. 해녀어업조합에서는 은밀히 암브로키들과 결탁해서 指定商人을 설정하고, 바닷속에서 자라는 해산물을 지정 상인들에게 사전에 口錢入札시킨다. 곧 口錢이 가장 높은 입찰자에게 지정판매 권이 주어진다. 口錢이란 조합에 대한 수수료, 곧 뇌불의 액수다. 뇌물을 얼마나 많이 바치느냐 하는 그 액수가 해산물 가격으로 둔갑하는, 비인간적 농락이 생업 현장을 멋대로 더럽혔다. 조합과 야합한 상인들의 착취에 격분한 해녀들의 수효는 이웃마을도 번져갔고, 새해 곧 1932년 1월 7일 下道 해녀들 중심의 집단항의가 細花 오일장에서 일어났다.

머리에는 <물수건>을 두르고, 그 위에 <눈>을 쓰고, <정계호미>와 <빗창>을 손에손에 들고 구름떼처럼 행진해 나갔던 것이다.

해녀어업조합지부장은 面長이 겸임했었고, 康共七면장은 신입도사 겸 해녀조합장 田口禎憲가 1월 12일 방문했을 때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약속, 겨우 무마하였다.

1932년 1월 12일, 제주 해녀의 역사적인 항일봉기는 드디어 대규모로 감행되었다. 우도면의 해녀들도 3백여명이 몰려왔다.

이 날은 해녀어업조합이 지정한 퍼류의 지정판매일이었다. 우도면에서는 물론, 여러 이웃마을에서 細花로 몰려들어 울분을 터뜨리게 된다. 이 날은 新任島司 田口禎憲가 시찰차 그곳에 들르기로 약속된 날이기도 했다.

해녀들은 치밀한 계획 아래 細花 오일장터로 구름떼처럼 몰려들었다. 細花, 牛島, 下道, 終達, 呑照 등 여러 마을의 해녀들이 꾸역꾸역 몰려왔다.

드디어 田口禎憲島司를 태운 차가 나타나자, 삼시간에 눈중들은 그 차를 에워쌌다. 당혹해진 田口島司는 경찰관들을 앞세우고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쳤지만, 막무가내였다.

오일장에는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해녀대표 몇몇은 신랄한 연설을 토했다. 한결같이 해녀어업조합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는 목소리였다.

1. 일제의 指定販賣를 절대 반대한다.

- 1. 일체의 계약보증금은 생산자가 보관하도록 하라.
- 1. 미성년자와 40세 이상의 해녀들에게는 해녀조합비를 면제하라.
- 1. 질병이나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입어할 수 없는 해녀들에게는 조합비를 면제하라.
- 1. 出稼證은 부로로 교부하라.
- 1. 總代는 마을별로 공명정대하게 선출되어야 한다.
- 1. 조합의 재정을 공개하라.
- 1. 상인과 결탁하는 升田書記官을 즉각 파면하라.

해녀들의 정당한 요구조건은 해녀집단의 절대적인 공명을 불러일으켰을 뿐더러,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함께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었다.

일제는 1월 24일 새벽 民衆運動協議會라는 단체의 멤버 29명을 검거하기에 이른다. 이 소식을 들은 수백명의 해녀들은 즉각 압송하는 차를 습격, 파괴하고 경찰관주재소로 물려가서 강력히 석방을 요청, 시위했다.

곧, 1월 24일, 細花에서 5백여명이 운집, 주재소를 습격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진다.

곧 1월 24일 아침, 舊左嶺 해녀 5백여명이 세화리 순사주재소를 습격, 건물을 파괴하고 경관과 격심한 충돌을 일으켰다. 사태가 험악해지자, 제주 각처의 경관을 총소집하고 전남경찰부로부터 32명의 경관이 제주도로 급파된다.

1932년 1월 26일자 東亞日報의 기사를 보면 1월 24일의 해녀의 항일투쟁이 얼마나 극렬했었는가를 짐작케 한다.

“五百餘名 海女團 駐在所를 大學襲擊”이란 표제 및 “警官隊와 衝突, 事態는 險惡: 雙方에 負傷者까지 내이게 된 모양: 昨夜 濟州島에서 突發: 突發의 動機는 二、三餘名 檢舉로”란 副題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맞춤법은 수정)

二十四日 아침 제주도 구좌면 세화리(濟州島 舊左面 細花里) 해녀 5백여명이 세화리 순사주재소를 습격하여 주재소 건물을 파괴하고 경관과 충돌되어 경관에 부상자 1명이 나고 순사의 모자를 빼앗고 제복을 찢고, 해녀측에도 부상자가 생기는 등, 사태가 험악하여지므로 제주 각처의 경관을 총소집하고 다시 전라남도에서 급파하여 전남경찰부로부터 경부보 이하 三十二명의 경관을 二十四日 밤 十一시 목포(木浦)발 경비선 금강환(金剛丸)으로 제주도에 급파하였다.

사건의 원인은 지난 十二일 이래 구좌면 정의면(旌義面)의 해녀 천여명이 해녀조합에 대한 반항으로 시위적 행동을 하며 신암 도사(島司)의 시찰을 기회로 그를 포위하고 폭행을 행한 이래 지금까지 붙은한 상태에 있어 경찰이 그날 즉 二十四일 아침에 주도자로 인정되는 해녀 二十여명을 검거하자 해녀들이 이에 격분하여 파검자를 빼앗으려고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한다. 자세한 것은 아직 미상이다.

1월 26일에는 우도면의 해녀 8백여명이 격렬하게 벌떼처럼 일어나 경관과 충돌하는 엄청난 사태가 발생했다. 8백여명의 해녀가 항거했다니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가를 이내 짐작케 한다. 우도면의 모든 여성들은 빠짐없이 그야말로 총궐기했던 抗日鬪爭이었다.

東亞日報 1932년 1월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三十餘名 檢舉護送中：海女團 警官隊 包圍：事態險惡으로 嚴重警戒中：空砲發射로 一部 鎮壓”이란 표제로 우도 해녀들의 대대적인 봉기를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제주도 구좌면 세화리(濟州島 舊左面 細花里)와 그 부근 해녀들이 세화리 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하여 경찰관과 충돌한 이래, 사태는 여전히 험악하더니 二十六일 새벽 세시경에 경찰관 四十여명이 우도(牛島)에 피신한 해녀 三十여명을 체포하여 우도 선창에서 배에 태워 제주본도로 압송하려 할 즈음에, 해녀 八백여명이 대거 경관대를 포위하고 잡혀가는 해녀를 빼앗으려 하여 다시 충돌, 경관대는 공포 十四발을 발포하여 간신히 진압하였다. 그러나 사태는 그냥 험악하므로 엄중 경계중이다 한다.

해녀 8백여명이 자그만 섬 우도에서 벌떼처럼 일어섰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8백여명이나 봉기한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단지 우도에 피신한 해녀 30여명을 체포하려는 日警의 행위를 강력히 저지하려는 데 그쳤던 것일까.

신문기사는 간단히 기술되었지만, 8백여명이나 맹렬히 봉기했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抗日鬪爭이 우도에서도 벌어졌으리라 추측된다. 봉기한 인원수가 엄청날 뿐더러, 며칠 동안 울분에 찬 해녀들의 폭발이 잇따랐다는 분위기로 보아서 우도에서의 항쟁도 엄청났으리라 본다.

그 이틀 전 세화리에서 봉기한 해녀수는 5백여명이라는데 우도에서는 8백여명이다. 그 실상을 밝히는 일은 중요한 숙제로 남는다.

사태는 날이 갈수록 험악해진다. 우도에서 대대적인 항거가 일어났던 다음날, 곧 1월 27일에도 해녀들이 벌떼같이 세화리 주재소로 몰려드는 사건이 벌어진다.

“犯人 奪還코자 駐在所에 또 殺到 : 해녀단은 경관에게 저지되어 : 濟州海女 事件 險惡”(東亞日報, 1932. 1. 29)이란 표제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제주도 해녀 소요사건은 작보와 같아 우도(牛島)에서 공포(空砲) 발사로 八백여명 해녀를 진압하였으나, 그후 이면에서 선동한 혐의로 체포한 민중협의회원(民衆協議會員) 四十명을 체포하자 해녀들은 그후 단속적으로 피채된 혐의자 탈환운동을 하다가 二十七일 오후 七시경에도 약 백명이 세화리(細花里)주재소에 쇄도하였다가 경관에게 저지되었다.

어차피 열기설기 얽힌 이 해녀운동의 원인과 전개과정 및 결말을 총정리하는 일이란 모든 기록과 구전되는 체험담을 폭넓게 수합, 정리해야 하므로 지난하고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결국 이 운동으로 78명(남 43명, 여 35명)이 검거되었다. 검거된 해녀들 가운데 주동자격인 大春花·大德良·金玉蓮 세분을 빼고는 3월 3일에 모두 석방된다.(朝鮮日報 1932. 3. 4~5. 每日新報 1932. 3. 5)

배후조종자로 검거된 자 가운데, 재판에 회부, 형이 확정된 자의 명단과 확정된 형은 다음과 같다.(藤永莊 : “1932년 濟州島海女のたたかい”, 109면)

〔演坪里〕 康寬順(2년 6개월) 申才弘(5년) 金聖五(2년 6개월)

〔下道里〕 吳文奎(3년 6개월)

〔細花里〕 金時坤(2년 6개월) 文道培(3년)

〔終達里〕 韓榮澤(無罪) 韓遠澤(1년) 韓香澤(2년·執行猶豫 4년)

高仕萬(1년) 蔡載屋(10개월)

따라서 1932년의 해녀항쟁은 전국 최대규모의 어민운동임과 동시에, 전국에서도 유례없는 대대적인 여성집단의 抗日運動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자그만 섬 우도면에서의 항거가 극렬했다는 점에 유념할 때 철저한 조사 연구가 절실하다.



